Entertainment p/03

3색 연말시상식 미리보기

metro®

메트로 2014년 12월 19일 금요일 제3120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06

88년생 야구선수 자선호프

무너진 코스피 1,900선… 장중 한때 연중 최저점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66포인트(0.14%) 내린 1,897.50에 장을 마감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1,881.73까지 하락하며 연중 최저점 밑으로 떨어졌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1,900에 못 미친 것은 지난 2월 5일 이후 처음이다. 연중 종가 최저치는 2월 4일 1,886.85이다. /연합뉴스

"송년회 풍속도 많이 달라졌네~"

평범 술자리 줄어들고 토크쇼·요리경연 등 대체
경기침체 영향 회수를 줄이거나 아예 생략하기도

장기 불황에 계속된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송년회가 예년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위기에 취해 '부어라 마셔라' 하는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기업들도 술판 위주의 송년회를 줄이거나 토크쇼 모임, 요리경연 대회를 하는 곳이 있는 반면에 백화점 식당가의 예약률은 전년보다 70%에 달하면서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국민 85% 송년회 생략

온라인쇼핑 사이트 G마켓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자사 고객 1798명을 대상으로 '2014 송년회 계획'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8%가 송년회 횟수를 '예년보다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7%는 '송년회 계획이 아예 없다'고 답했다. 결국 송년회를 줄이거나 안 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85%에 달한 것이다.

올해 송년회 예상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인 55%가 2~3회를 꼽았다. 송년회로 인한 총 예상 지출 금액은 5만~10만원 사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29%로 가장 많았다.

송년회 시즌 가장 걱정되는 점으로 응답자의 40%가 '얇아지는 지갑'을 선택해 경제적인 부담을 토로하는 이들이 많았다. '잦은 음주로 인한 건강'은 27%로 2위를 차지했으며 ▲'술과 안주로 늘어나는 살'(23%) ▲'가족·연인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 듦'(10%)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도 송년회 건너뛰어

이런 분위기는 기업에도 반영되는 모습이다. 송년회가 예년보다 눈에 띌 정도로 줄었다. 송년회와 신년회를 별도로 치르던 과거와 달리 신년회로 행사를 돌리거나 아예 신년회마저도 간단한 약식 행사로 대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별한 송년회를 준비한 기업도 있다.

소셜커머스 위메프의 경우 송년회는 아니지만 매 분기별로 전사회의를 열고 있다. 전 직원이 모여 강의를 듣고 우수 직원 포상,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는 직원 소개 등 매번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특히 강연은 청중과 발표자가 서로 소통하는 토크 형식으로 이뤄진다. 끝난 후에는 위메프와 계약을 맺고 있는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진다.

위메프 관계자는 "유관 업무가 많지 않아 잘 몰랐던 직원과 친해지고 타 부서 업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대행사 드림앱은 직원들과 송년회를 겸해 요리 경연 대회를 열기로 했다. 총 3개 팀으로 나눠 직접 요리를 해가며 화합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색 송년회를 마케팅에 활용한 업체도 있다. 호주 내추럴 스킨케어 브랜드 쥴리크는 스파 송년회를 제안하고 있다. 호주 남쪽 애들레이드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쥴리크 제품들을 사용해 피부를 가꿀 수 있다. 또 전문 테라피스트가 각 피부 타입과 컨디션에 맞춰 일 대 일 트리트먼트를 해준다.

◆백화점 식당가 예약 전년 比 10%↑

이런 가운데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곳도 있다. 대다수의 외식업체들은 줄어든 송년회 등으로 크리스마스에 이은 연말연시 특수가 없어진 것 아니냐고 울상을 짓고 있지만 백화점 식당가는 예년보다 예약이 늘면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내 식당가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사전 예약을 받은 결과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12월 초까지의 전점 식당가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가까이 늘었다.

특히 연말 모임을 예약하는 고객들 대부분이 40대 이상의 주부 고객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예약의 50%는 아이를 동반한 20대 후반~30대의 젊은 주부들이 차지했다.

전 연령대에 걸쳐 연말 모임 장소로 식당가가 주목받고 있다.

20대 후반~30대의 가정주부 고객들은 어린 자녀를 동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백화점 측은 유아 휴게실, 유모차 대여소 등 아이를 위한 편의시설이 기본적으로 마련돼 있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 연말 모임 장소로 백화점 식당가를 많이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영일·김수정기자 prms@metroseoul.co.kr

오늘 사회공헌특별판 발행합니다.

알림

영상 기자 및 아나운서 모집

메트로신문이 팟캐스트와 동영상 뉴스를 촬영할 영상 기자와 아나운서를 공개 모집합니다. 메트로신문은 온라인과 모바일 미디어의 영상화 추세에 부응하고자 동영상 뉴스 사업을 신규로 전개합니다. 이에 동참할 기자와 아나운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1. 모집부문
- 영상 기자 및 아나운서 각 0명

2. 지원자격
-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 각 부문 3년 이상 경험자 (아나운서는 콘티 작성 가능한 자)

3.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4.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직접 제작·편집한 동영상 3건

5. 접수기간
- 12월 10~22일

6.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7. 문의
- 경영기획실 신우제 차장 02)721-9813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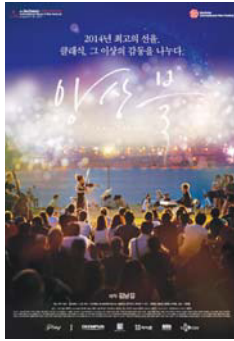
이 주의 개봉작

마미
장르: 드라마
감독: 자비에 돌란
출연: 앤 도벌, 안토니 올리버 피론

불같은 성격이지만 유쾌하고 당당한 엄마 디안은 거칠지만 사랑스러운 아들 스티브가 보호시설에서 사고를 쳐 쫓겨나자 홈스쿨링을 시작한다. 이웃집 여인 카일라와 함께 작은 행복을 찾아가던 세 사람. 그러던 어느 날 디안 앞으로 한 장의 편지가 날아온다.

클라우즈 오브 실스마리아
장르: 드라마
감독: 올리비에 아사야스
출연: 줄리엣 비노쉬, 크리스틴 스튜어트, 클로이 모레츠

마리아 엔더스는 연상의 상사 헬레나를 유혹해 자살로 몰고 가는 젊고 매력적인 캐릭터 시그리드 역으로 스타덤에 올랐다. 20년이 지난 뒤 마리아는 같은 연극의 리메이크 작품에 출연을 제안 받는다. 그러나 시그리드가 아닌 헬레나 역이라는 사실에 고민에 빠진다.

앙상블
장르: 다큐멘터리
감독: 이종필
출연: 권혁주, 성민제, 김지윤

클래식 음악 연주자 일곱 명이 무대 위로 등장한다. 세 살 때 처음 바이올린을 잡은 클래식계의 스타 권혁주, 대중적으로 유명해지고 싶은 콘트라베이시스트 성민제, 뛰어난 미모를 지닌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윤 등 젊은 연주자들의 열정 넘치는 앙상블이 시작된다.

쥬로링 동물탐정 극장판
장르: 애니메이션
감독: 이종현, 박시후
출연: 김서영, 양정화, 문남숙

동물과 사람이 평화롭게 사는 아름드리시 마을. 최고의 반려동물을 뽑는 콘테스트로 축제 분위기가 한창이다. 그러던 어느 날, 쥬로링 동물 탐정은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를 구조하다가 콘테스트에서 수상한 동물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작고 평범한 호빗의 위대한 용기

물질만능주의 비판·변함없는 우정… 전쟁 장면 장관

이 주의 선택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호빗: 다섯 군대 전투

'외로운 산'을 떠나 호수마을을 습격에 나선 사나운 용 스마우그는 바르드(루크 에반스)가 쏜 화살에 맞아 죽음을 맞이한다. 마침내 난쟁이들은 고향인 에레보르를 되찾게 되지만 소린(리처드 아미티지)은 보물에 눈이 멀어 점점 탐욕스럽게 변해간다. 터전을 잃은 호수마을 사람들과 오래 전 난쟁이들에게 빼앗긴 보물을 되찾으려는 요정, 그리고 암흑의 군주 사우론이 보낸 오크 군단이 에레보르로 몰려온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호빗 빌보(마틴 프리먼)는 전쟁을 막기 위한 무모하지만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

2001년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을 시작으로 스크린에서 펼쳐진 중간계 여정이 '호빗: 다섯 군대 전투'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방대한 내용과 독창적인 세계관으로 영화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던 J.R.R 톨킨의 판타지 대작은 피터 잭슨 감독의 손을 거쳐 마침내 6편의 영화로 완성됐다. 그 대미를 장식하는 '호빗: 다섯 군대 전투'는 시동을 걸기까지 다소 뜸을 들였던 전편들과 달리 곧바로 본격적인 이야기로 관객을 이끌며 끝을 향해 달려간다.

영화 '호빗: 다섯 군대 전투'. /AP·뉴시스

'호빗: 다섯 군대 전투'는 '호빗' 시리즈 중에서 주제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물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 그리고 변함없는 우정이 바로 영화가 그리는 중요한 테마다. 보물을 지키다 죽음을 맞이하는 호수마을의 영주, 탐욕에 빠져 자신의 본분을 잊어가는 소린, 그리고 보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무모한 전투를 통해 영화는 물질만능주의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진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평화를 지키려는 빌보의 용기로운 고군분투는 소린과의 변함없는 우정으로 이어진다. '반지의 제왕'이 그러했듯 영화는 지극히 작고 평범한 호빗이 세상을 구한다는 이야기로 희망과 감동을 전한다.

영화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 거대한 스케일의 전쟁 신으로 스펙터클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보다 진일보한 기술로 담아낸 45분 분량의 전쟁 장면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다. 긴박한 전쟁의 순간 속에서도 인물들의 갈등과 감정 변화를 빠트리지 않고 따라가는 연출도 인상적이다.

물론 여전히 '호빗' 시리즈를 3부작으로 만들어야 했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촘촘한 짜임새를 지닌 '반지의 제왕' 시리즈와 비교하면 이야기 구성 면에서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호빗: 다섯 군대 전투'는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를 언급하는 요소들을 곳곳에 숨겨 놓았다. J.R.R. 톨킨의 중간계 시리즈는 이렇게 막을 내린다. 그러나 앞으로도 호빗의 모험은 늘 우리 곁에 남아 있을 것이다. 12세 이상 관람가.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특별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진모영 감독과 한경수 PD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의미 있는 흥행

애틋한 로맨스로 잔잔한 감동… 대작들 속 식지 않는 열기
진모영 감독 "영화 때문에 할머니 여생이 불편하지 않길"

대작들이 쏟아져 나오는 12월 극장가에서 예상하지 못한 한 편의 영화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27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이하 '님아')는 17일까지 누적 관객수 149만3653명을 동원하며 흥행 중이다. '호빗: 다섯 군대 전투' '국제시장' 등이 개봉한 17일 하루 동안에도 13만3400명의 관객을 모으며 박스오피스 3위 자리를 지켰다.

영화는 강원도 횡성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98세 조병만 할아버지와 89세 강계열 할머니 부부가 주인공이다. 3년 전 KBS1 '인간극장'이 한 차례 소개하기도 했던 이들 노부부의 이야기를 1년 4개월여 동안 담았다. 세월도 지우지 못한 두 노부부의 애틋한 로맨스가 세대를 불문하고 많은 관객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영화를 연출한 진모영 감독은 방송국 독립 프로듀서로 활동하다 지난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 이성규 감독의 '시바, 인생을 던져'의 프로듀서로 영화계에 발을 들였다. 그는 17일 오전 CGV 압구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렵게 만든 '시바, 인생을 던져'의 관객 수는 5000명이었다"며 "지금 '님아'의 관객 수나 흥행 현상은 영화를 처음 준비할 때는 예상 못했던 것이라 스스로도 놀라고 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예상치 못한 흥행에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그만큼 부담과 걱정도 크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강계열 할머니에 대한 대중들의 지나친 관심도 그 중 하나다.

진모영 감독은 "할머니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영화가 잘 되는 것도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만 관심이 반가우면서도 두렵다고 말씀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할머니의 여생이 영화 때문에 편안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저희 또한 그 부분에 대해 괴로울 것 같다"고 했다.

독립영화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한경수 프로듀서는 "어느 순간 '님아'가 다양성을 해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힘들게 잘 만든 영화들이 많은데 같이 상영돼 관객이 이 다양한 영화들을 함께 즐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모영 감독은 "'님아'가 건강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는 독립영화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나 길을 넓히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장병호기자

주말엔 본·방·사·수

"공감·위로는 '연민'에서 출발"

'미생' 종영 기자간담회…'그래도 살만한 인생'이 아닌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인생'

tvN 금토드라마 '미생'이 종영까지 단 2회만을 남겨 놓고 있다.

'미생'의 연출을 맡은 김원석 PD와 정윤정 작가는 18일 마지막 촬영을 마치고 서울시 청담동 엠큐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미생'을 만들며 겪었던 다양한 에피소드와 최고의 장면을 꼽았다.

드라마 '미생'의 흥행 요소는 공감과 위로였다. 시청자들은 매회 드라마 속 캐릭터에 감정을 이입해 울고 웃었다.

드라마를 만든 김원석 PD와 정윤정 작가도 마찬가지였다. 최고의 장면으로는 오상식 과장(이성민)이 우스꽝스러운 옷을 입고 춤추며 노래를 부른 접대 장면을 꼽았다.

"이성민 선배가 너무 힘들다고 말했어요. 오상식 캐릭터 감정이입이 제대로 됐다고 하더군요. 실제 계약을 따기 위해 말도 안되는 짓을 해야 하는 직장인에 크게 공감이 됐다고 말입니다." (김원석 PD)

결국 '미생'은 시청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드라마 곳곳에는 연출진과 작가진의 고집이 보인다. 멜로 코드가 없는 것부터 카메라의 동선, 음향 삽입 등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이 눈에 띈다.

김원석 PD는 "지금 시점의 화두는 힐링이다. 하지만 우리는 감히 그런 말을 내세우지 않기로 했다"며 "첫 포스터 카피가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었다. 드라마와는 상반된 카피였다.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인생'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또 정윤정 작가는 "'그래도 살만한 인생'이라는 카피의 포스터를 보고 사람들이 큰 박탈감을 느꼈을 것 같다. 너도 나도 힘든 상황인데 누가 공감을 하겠냐"라며 "'미생'은 '저렇게 잘난 사람들도 힘들구나'라는 생각의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었다"고 덧붙였다.

'미생' 김원석 PD(왼쪽), 정윤정 작가. /CJ E&M 제공

김원석 PD가 '미생'을 통해 하고 싶었던 것은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였다. 그는 "젊은 친구들의 두가지 키워드는 불안과 외로움"이라며 "장그래(임시완)는 이 두가지를 표현해 내는 캐릭터"라고 소개했다. 또한 "젊은 세대들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바꾸는 해결책은 만들 수 없지만 공감과 연민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그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원석 PD는 '미생' 최고의 대사로 장백기(강하늘)가 말한 "나는 내가 가진 스펙이 이렇게 부끄러워진 적이 없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잘못이 아니란 걸 알았다"라는 대사를 꼽았다. 이는 극중에서 남다른 스펙을 지닌 장백기가 계약직 사원 장그래에게 술을 권하며 한 말이다.

한편 '미생'의 대미를 장식할 19회와 20회는 19일과 20일 오후 8시30분에 방송된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

알고보는 TV

'3색' 연말 시상식 미리보기

'축제·투표·입담' 개성 살린 지상파

이번주 일요일 '2014 SBS 가요대전'을 시작으로 지상파 3사의 연말 시상식이 시작된다. 각 방송사는 저마다의 특색을 살려 시청자의 관심을 끌겠다는 각오다. SBS는 올해 SAF(SBS 어워드 페스티벌)라는 축제를 만들어 자사의 3대 연말시상식 (가요대전·연예대상·연기대상)을 아울렀다. MBC는 시청자 투표비중을 높였다. KBS는 MC 구성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3사 연말 시상식의 볼거리를 미리 살펴본다.

신동엽

◆화려한 SBS '가요대전'

'2014 SBS 가요대전'은 21일 오후 8시45분에 방송된다. 2PM 닉쿤·씨엔블루 정용화·인피니트 엘·B1A4 바로·위너 송민호가 프로젝트 그룹 '럭키보이즈'를 결성해 진행을 맡는다.

이번 '가요대전'은 '슈퍼5(Super5)'라는 콘셉트로 진행된다. 다섯 개의 테마를 가진 큰 무대를 의미한다. 한 관계자에 따르면 5개의 특별 무대와 올 가요계를 정리하는 시상식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2006년 폐지됐던 시상식을 진행한다. 음원 다운로드 횟수·앨범 판매량·SNS 조회수를 토대로 심사해 신인상·남녀가수상·남녀그룹상·최고음원상·최고음반상 총 7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한다. 넥스트 유나이티드는 고(故) 신해철의 유작 '리얼 월드'를 최초로 공개한다. 팝 가수 제프 버넷과 빅뱅 태양의 컬래버레이션도 준비돼 있다. 서태지는 지상파 3사 가요 시상식 중 SBS에만 출연한다. '슈퍼5'의 마지막 '레전드' 무대에 오른다.

◆시청자와 함께 하는 MBC '방송연예대상'

MBC는 29일 오후 8시55분 '방송연예대상'을 시작으로 30일 '연기대상', 31일 '가요대제전'을 방송한다.

특히 '방송연예대상'은 100% 시청자 문자 투표로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후보 역시 방송 시작과 동시에 공개된다. 실시간 문자 투표로 연예대상을 결정하는 건 MBC가 최초다. 시청자가 직접 뽑는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MC 김성주·김성령·박형식의 조화도 관전 포인트다. 올해 MBC 예능 프로그램 '아빠! 어디가?'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진짜 사나이'에 출연해 강한 인상을 남긴 세 사람이다. 김성주의 자타공인 생방송 진행 능력과 김성령의 오랜 경력, 박형식의 풋풋함이 어우러져 '방송연예대상'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기대를 모은다.

◆'세대 통합·입담 대결' KBS

'2014 KBS 가요대축제'는 오는 26일 오후 8시30분부터 220분 동안 KBS홀에서 생방송된다. 이휘재·택연·윤아가 진행하며 올해 발표된 가요를 통해 세대가 하나 되는 콘셉트로 무대를 연출한다. KBS의 한 관계자는 "국내 예능계와 가요계에서 맹활약 중인 세 사람은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이 될 '가요대축제'의 의미를 살려 내기에 최적"이라고 말했다.

27일 방송되는 '2014 KBS 연예대상'은 신동엽·유희열·성시경을 MC로 확정했다. '19금 토크'라는 공통된 예능 감각을 지닌 세 사람의 조화가 '연예대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제작진은 "시상식 MC는 혼성 MC체제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올해 이례적으로 세 남성 MC를 전면에 세우게 됐다"며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만큼 색다른 재미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효진기자 jeonhj89@

서태지 김성령

“아버지에게 전하고픈 감사하다는 말”

작품성과 예술성이 뛰어난 영화를 만드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대중들이 좋아할 영화를 만드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어렵다. 제 아무리 톱스타를 기용하고 볼거리와 재미 등을 갖췄다 할지라도 매 작품이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윤제균(45) 감독은 흥행의 귀재라 부를 만하다. 그의 영화는 투박하지만 그 속에는 마음이 움직일 만한 구성들이 하나쯤은 녹아 있다. 섹시 코미디를 표방했지만 알고 보면 순정 넘치는 로맨스였던 '색즉시공', 재개발을 앞둔 동네에서 벌어지는 휴먼 코미디 '1번가의 기적', 그리고 재난을 겪으면서 더욱 끈끈해지는 소시민들의 이야기인 '해운대'까지 그의 영화는 가장 대중적인 화법으로 흥행에 성공해왔다.

17일 개봉한 '국제시장'은 윤제균 감독이 5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6·25를 시작으로 1980년대 초반 이산가족상봉까지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몸소 겪은 주인공 덕수(황정민)를 통해 자신보다 가족을 위해 살았던 아버지 세대의 삶을 그린 영화다.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위해 영화를 만들었다는 윤제균 감독은 “아버지의 이름을 건 만큼 진짜 잘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과 의무감이 큰 영화였다”고 말했다.

1000만 영화 '해운대' 이은 5년 만의 신작
아버지에 대한 사명감·의무감으로 만든 영화
“부모님에게는 향수·젊은이에게는 새로운 경험 되길”

◆'해운대'로 1000만 감독이 됐다. '국제시장'의 흥행에 대한 부담도 클 것 같다.

사실 '1000만 감독'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기대할수록 부담은 커진다. 중요한 건 관객들의 판단이다. 그게 더 긴장되고 부담된다.

◆'해운대' 이후 처음 밝힌 차기작은 글로벌 프로젝트였던 '템플 스테이'였다. '국제시장'을 먼저 준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

'해운대' 이후 생각한 영화가 '템플 스테이'와 '국제시장'이었다. 처음에는 '템플 스테이'의 제작 진행 속도가 빨랐다. 그런데 글로벌 프로젝트다 보니 진행 속도가 점점 더디어졌다. 그러던 중 2012년 가을에 '국제시장'의 초고가 나왔다.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였고 먼저 '국제시장'을 하게 됐다. '국제시장'은 오래 전부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였다.

◆주인공인 덕수와 영자가 실제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이라고 언론시사회에서 뒤늦게 밝혔다. 실제 부모님의 이야기는 얼마나 반영된 건가?

부모님의 에피소드가 들어간 건 아니다. 다만 캐릭터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많이 빌려왔다. 덕수처럼 내 아버지도 조금은 다혈질적인 성격이었다. 그런데 친척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도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하게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더라. 6·25 때 피란 과정 등은 픽션이다. 아버지의 고향은 경남 창령이기 때문이다. 다만 아버지가 6·25 때 실제로 동생을 잃은 건 사실이다.

◆시나리오 쓰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무엇이었나?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사건을 꼽는 게 힘들었다. 몇 가지를 고른 다음 그것을 엮는 과정에서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캐스팅은 어떻게 이뤄졌나?

황정민은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덕수라고 생각했다. 영자는 김윤진을 생각하기는 했지만 분량 때문에 부탁하는 게 실례일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 흔쾌히 작업에 참여해줘 감사했다. 다른 배우들도 분량은 많지 않아도 관객 뇌리에 박힐 장면이 하나쯤은 만들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김슬기 같은 경우는 'SNL 코리아' 때부터 눈여겨 봤다.

◆덕수와 영자의 집이 예쁘다.

부산 남부민동에 있는 집이다. 국제시장 뒤쪽에 있다. 바다도 보이고 용두산 공원도 보이면서 국제시장과 자갈치 시장까지 보이는 곳을 찾아 동네를 샅샅이 뒤졌다.

◆달구(오달수)가 남포동에 있는 극장 대영시네마의 대표로 등장하는 게 재밌었다.

부산에서 그만큼 의미있는 극장이다. 촬영하면서 대영시네마 사장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촬영했다. 다만 영화에서 달구가 베트남 여자와 결혼한 건 사실이 아닌 픽션이다. 혹시라도 사장님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웃음)

◆전반적으로 롱 테이크 기법이 많이 쓰였다.

이전 영화들이 3000~4000컷이었다면 이번에는 2400~2500컷 정도였다. 호흡을 빨리 가고 싶지 않아서 롱 테이크를 많이 쓰고 장면들도 '원 신 원 커트(하나의 신을 편집 없이 담는 것)'로 갔다. 아무래도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하는 영화라서 진짜 잘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과 의무감이 컸다.

◆어른들 세대는 좋아할 영화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개인적인 믿음이 있다. 부모님 세대는 향수를 느낄 것이고 젊은 세대는 새로움을 느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관통하는 영화인데 왜 정치·사회·역사적인 시선이 없는지를 묻는다. 그러나 이 영화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 만든 영화다.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영화를 본다면 우리 영화의 미덕을 발견하기 힘들 것이다. 물론 영화를 어떻게 볼지는 관객의 선택이지만 말이다.

◆영화 후반부 덕수가 우는 모습과 즐거운 가족의 모습을 대비시킨 장면은 '국제시장'의 하이라이트다.

그 한 장면을 위해 '국제시장'을 만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국제시장'을 시작할 때 처음 떠올린 것이 바로 그 장면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놓고 아버지 세대와 젊은 세대의 대비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할아버지도 결국은 누군가의 아들이었다는 이야기였다. 그 장면에서 덕수가 아버지에게 하는 말은 지금의 내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차기작 계획은 어떻게 되나?

아직은 아무런 생각이 없다. 다만 '국제시장'이 잘 되면 80~90년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있다. 처음 시나리오에서는 80~90년대 이야기도 있었다. 80~90년대를 살아가는 덕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있다. 물론 배우들이나 투자사에는 이야기하지 않아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웃음)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김민주(라운드테이블)·디자인/최송이

'국제시장'으로 돌아온 흥행 귀재 **윤제균** 감독

‘혼자 노는’ 작가의 ‘쏠로쑈’

케리스 최, 첫 개인전 개최

3년 동안 만든 작품 50점 전시… 26일 오프닝나이트 파티 이벤트

작가 케리스 최(최혜승)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인사동 공아트스페이스에서 한국에서의 첫 개인전인 ‘쏠로쑈’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다양한 주제와 소재로 만들어진 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공간은 페인팅·판화·부조·사진·설치물과 네온·LED 조형 작품들로 구성된다. 정숙한 갤러리보다 작가의 스튜디오 느낌의 자연스럽고 흥미로운 공간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타이틀인 ‘쏠로쑈’는 말 그대로 ‘개인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혼자 쇼를 한다’ ‘혼자 논다’ ‘혼자 다 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관람객에게 전시 작품은 만든 이보다는 ‘혼자 놀고 있는 이’ 혹은 ‘혼자 있는 자와 그 흔적’으로 보이고 싶다는 작가의 의도를 담은 타이틀이다.

이는 관람객에게 철저한 ‘관객성’을 요구하는 것인 동시에 작가 스스로 그 ‘관객성’ 속에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시 구성에서 작품 하나하나는 개체로서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치밀하게 의도된 계획 아래 전시장 전체 공간을 하나의 무대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혹은 그 안에 살고 있는 배우, 작가의 또 다른 자아와 함께 그와 연결된 생활 소유물로써 곳곳에 배치된다.

케리스 최는 서울예술고등학교 재학중 미국으로 떠나 미국 켄트스쿨을 다녔으며 로드아일랜드 디자인스쿨 파인아트에서 학사를 받았다. 미국 동부 프로비던스와 뉴욕에서 13년을 혼자 보내면서 만든 작품들, 그리고 귀국 이후인 2014년 서울에서 탄생한 작품들을 전시했다.

이는 작가 스스로가 각기 다른 지역과 공간 또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자기 다수의 자아들을 한데 모아 보여줌으로써 강하지만 조화롭고 부드럽지만 대립하는자신만의 모순된 정신적, 물질적 요새를 재현하려는 것이다.

한편 오는 26일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는 오프닝나이트 파티 이벤트를 개최한다. 전시회의 주인인 케리스 최의 실생활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주최 측 설명이다. 케리스 최의 작품이 지닌 의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케리스 최는 “스스로 만들어낸 자아 집대성의 공간에서 어떤 역할을 연기할지 미지수”라며 “‘혼자 놀고 있는 이’와 2014년 끝자락의 흥분과 설렘을 함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이소영의 **명화 에세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미국에서 ‘빛의 화가’라 불리는 토마스 킨케이드 (Thomas Kinkade·1958~2012)입니다. 어느 날 그는 크리스마스 즈음하여 고향을 방문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게 되죠. 빚을 갚지 못하면 고향집이 은행에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하나?’ 고민하다가 본인의 전공인 미술로 돈을 벌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의 작품은 가는 곳마다 무시를 당합니다. 어느 날 그는 병들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힘든 몸으로 그림을 그리는 한 노인 글렌을 만나게 됩니다. 글렌이 그에게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림을 그리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림을 그려라” 라는 조언을 해주자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그토록 지키고 싶은 고향집을 따뜻하게 그려줍니다. 어머니가 몹시 기뻐하자 힘이 난 그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직접 그려서 나눠줍니다.

토마스 킨케이드의 ‘크리스마스 전야’. /토마스 킨케이드(Thomas Kinkade·1958~2012)

결국 그의 그림은 소문을 타고 유명해져 크리스마스 카드에 실리게 됐고 그는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크리스마스 화가가 됩니다. 그의 그림들은 유화로 그려낸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을 만큼 몽상적이면서도 동화 같아요. 그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영화 ‘크리스마스 별장’을 보면 조금 더 그의 인생과 가까워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과 자원이 무엇이든 나는 사람들이 느낄만한 어두운 면에 빛을 주려고 노력한다.”

그가 살아있을 때 인터뷰에서 남긴 말인데요. 오늘은 내가 가진 재능과 자원으로 누구에게 빛을 줄지 곰곰이 생각해봐야겠어요. 그리고 다가올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나눌지도 고민하렵니다. 크리스마스는 토마스 킨케이드가 마을 사람들에게 그림카드를 나눠줬듯이 소중한 것들을 나누는 날이잖아요.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따뜻한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이소영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대표

로이킴, 크리스마스송 발표

‘잇츠 크리스마스 데이’… 단독 콘서트서 첫 무대

가수 로이킴이 크리스마스 준비에 돌입했다.

로이킴의 소속사 CJ E&M에 따르면 로이킴은 19일 정오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잇츠 크리스마스 데이’를 발표했다.

‘잇츠 크리스마스 데이’는 로이킴이 작사·작곡했다. 로이킴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 그동안 못했던 사랑 고백을 하자는 내용의 달콤한 사랑 노래”라고 설명했다.

음원 발매에 앞서 공개된 ‘잇츠 크리스마스 데이’ 앨범 커버에는 루돌프 사슴의 뿔과 눈꽃 그림이 삽입돼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이번 신곡은 ‘봄봄봄’ ‘러브 러브 러브’ ‘홈’에 이은 로이킴의 계절 송으로 의미가 크다. ‘잇츠 크리스마스 데이’까지 각 계절을 주제로 한 노래 ‘사계절송’을 완성하게 됐다.

한편 로이킴은 20·21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여는 단독 콘서트 ‘우리의 겨울 #2’에서 신곡 ‘잇츠 크리스마스 데이’의 라이브 무대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이날 현장에서는 ‘잇츠 크리스마스 데이’의 한정판 CD도 함께 판매될 예정이다.

/김지민기자 langkim@

올리 슈틸리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16일 오후 서귀포 시민축구장에서 눈을 맞으며 훈련에 열중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틸리케호, 내년 사우디와 평가전

2015 아시안컵 앞두고 1월 4일 시드니서

슈틸리케호가 2015 아시안컵을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을 치른다.

17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내년 1월4일 호주 시드니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평가전을 갖는다. 경기장과 시간은 조율 중이다.

울리 슈틸리케(60) 대표팀 감독은 오는 21일 제주도에서 전지훈련을 마치고 난 뒤 코칭스태프와 협의해 아시안컵에 출전할 23명의 최종 엔트리를 결정한다. 발표는 22일 오전 10시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역대 전적에서 4승7무5패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최근 3경기에선 1승2무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역대 아시안컵에서 우승(1984년·1988년·1996년)과 준우승(1984년·1988년·1996년)을 각각 세 번씩 차지한 아시아의 전통 강호다. 그러나 최근 하락세를 보이면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은 106위까지 밀렸다. 한국(69위)보다 37계단 아래다.

한국 대표팀은 2015 아시안컵 주최국인 호주를 비롯해 오만, 쿠웨이트와 함께 A조에 속해있다. 태극전사들은 시드니에서 평가전을 치른 뒤 내년 1월 6일 2015 아시안컵의 첫 경기가 열리는 캔버라로 이동해 10일 오만, 13일 쿠웨이트, 17일 호주와 조별리그를 치른다.

/김지민기자 langkim@

故 이두환 기리는 자선호프 개최

2006년 세계청소년야구 우승 '88둥이' 뭉쳐

2006년 쿠바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한 1988년생 동기 김광현·양현종·김선빈·이용찬·김강·이재곤 등이 20일 오후 3시 서울시 강남구 치킨더비 자곡점에서 자선 일일호프를 연다.

이들은 대퇴골두육종 판정을 받고 8차례 수술을 했으나 2012년 12월21일 세상을 떠난 동료 이두환을 기리고 암과 투병 중인 환자를 돕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이두환은 양현종, 김광현 등과 함께 당시 세계청소년대회에 참가해

(왼쪽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양현종, 김광현, 김선빈, 이용찬.

우승을 일군 선수로 2007년 두산 베어스에 입단했다. 기아로 이적 후 대퇴골두육종 판정을 받고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세상을 떠났다.

특히 양현종은 팀 동료이기도 했던 이두환을 기리기 위해 그의 이니셜 'DH'를 모자에 새겨 경기에 출전하기도 했다. 이른바 '88둥이' 동기들은 지난해 한 차례 자선행사를 열었다. 올해는 두 번째 행사다.

이날 일일호프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이두환의 이니셜 'DH'를 적은 모자를 쓰고 음식을 나를 예정이다. 간단한 경매 행사도 한다. 수익금은 모두 암환자를 돕는 데 쓴다.

/김학철기자

프로농구 전적 18일

팀					
삼성	20	18	27	18	83
LG	24	22	15	12	73
전자랜드	16	18	23	24	81
KT	14	19	14	9	56
하나외환	20	12	26	17	75
국민은행	13	15	20	20	68

프로배구 전적 18일

도로공사	3	1	현대건설
OK저축은행	3	1	한국전력

'득점포' 손흥민, 침묵 깰까?

시즌 개인 최다골 기록에 '-1'… 20일 프랑크푸르트와 격돌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가 시즌 반환점을 맞는다. '손세이셔널' 손흥민(22·레버쿠젠)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자신의 한 시즌 최다골 타이기록에 재도전한다.

손흥민의 소속팀 레버쿠젠은 오는 20일(한국시간) 독일 레버쿠젠의 바이아레나에서 열리는 2014-2015 분데스리가 17라운드 홈경기에서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격돌한다.

이번 시즌 동안 손흥민은 각종 대회를 합해 11골을 터뜨려 한 시즌 개인 최다 득점 기록(12골)에 한 골만을 남겨뒀다. 지난달 23일 하노버96을 상대로 분데스리가 5호골이자 시즌 11호골을 기록한 이후 한 달 가까이 골이 침묵하고 있다.

올 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스리그,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등 소속팀 경기는 물론 국가대표팀까지 오가며 쉴 틈이 없었던 손흥민은 최근 다소 페이스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루시아 묀헨글라트

레버쿠젠의 손흥민. /AP연합뉴스

바흐와의 15라운드에서는 후반 12분 만에 교체되기도 했다.

지난 18일 호펜하임과의 경기에서는 풀타임을 뛰며 정확한 패스로 동료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등 팀의 승리에 힘을 보탰다. 특히 20일에 열리는 이번 경기는 전반기 마지막 경기이자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대표팀 최종명단 발표 이전에 있는 최종전인 만큼 손흥민의 컨디션을 가늠해 볼 기회다.

이날 경기는 소속팀 레버쿠젠으로서도 최상위권으로 도약할 발판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일전이다. 레버쿠젠은 16라운드까지 7승6무3패(승점 27·골득실 +8)로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4위에 올라 있다. 3위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승점 27·골득실 +10)와는 승점 차가 없는 상태라 이 경기 결과에 따라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직행할 수 있는 3위 도약도 노려볼 수 있다.

/김학철기자 kimc0604@metroseoul.co.kr

남미 챔피언·스페인 명가 대결

FIFA 클럽 월드컵 21일 결승전

주말의 스포츠월드

'남미 챔피언'으로 불리는 아르헨티나의 축구 클럽 산 로렌소가 올해 국제축구연맹(FIFA) 클럽 월드컵 결승전에 올라 축구 명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맞붙는다.

산 로렌소는 18일(한국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FIFA 2014년 클럽 월드컵 4강전에서 오클랜드시티(뉴질랜드)를 연장 접전 끝에 2-1로 따돌렸다. 이로써 산 로렌소는 21일 레알 마드리드와 세계 최고의 클럽의 지위를 놓고 한판대결을 펼친다. 오클랜드시티는 같은 날 크루스 아술(멕시코)과 3·4위전을 치른다.

이날 산 로렌소는 전반 추가시간 파블로 바리엔토스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오클랜드가 후반 22분 동점골을 터뜨려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다. 연장 돌입 3분 만에 산 로렌소의 모로 마토스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한편 오클랜드시티의 중앙 미드필더 한국인 선수 김대욱은 이날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무릎 부상으로 벤치를 지켰다. 김대욱은 K리그 대전 시티즌, 경

산 로렌소는 18일(한국시간)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FIFA 2014년 클럽 월드컵 4강전에서 오클랜드시티(뉴질랜드)를 연장 접전 끝에 2-1로 따돌렸다. 이로써 산 로렌소는 21일 레알 마드리드와 세계 최고 클럽의 지위를 놓고 한판대결을 펼친다. /AP뉴시스

찰 축구단, 실업축구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활약하다 올해 오클랜드시티로 이적했다. 그는 지난 11일 모그레브 테투앙(모로코)과의 플레이오프에서도 부상 탓에 결장한 바 있다.

앞서 펼쳐진 5·6위전에서는 아시아 챔피언 시드니 원더러스(호주)와 아프리카 챔피언 ES세티프(알제리)가 2-2로 승부를 가르지 못하고 승부차기 혈투 끝에 ES세티프가 5-4로 이겼다. /김학철기자

“액세서리 산업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다”

사람이야기

■ 이혁준 한국타거스 대표

한 곳서 10년 이상 경험하면 시장 움직임 예측 가능
아이폰6 ‘그립케이스’ 대박… 30년간 300억개 가방 판매

“한 우물을 파야한다.”

“새로운 성장 엔진을 찾아야 한다.”

따로 들었을 때는 진리인 것 같지만 같이 들으면 모순되는 말이다. 그렇다면 어떤 말이 정답에 가까울까.

이혁준(41) 한국타거스 대표의 삶을 보면 한 우물을 파는 것도 나쁘지 않은 듯 싶다. 타거스는 백팩과 같은 가방을 비롯해 스마트폰 케이스·케이블, 블루투스 키보드 등을 만드는 디지털 액세서리 기업이다.

이 대표는 액세서리 분야에서만 10년 넘게 활약했고 국내 유명 액세서리 기업의 대표를 맡았거나 설립을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다.

‘스마트폰 대중화’라는 표현이 진부하게 느껴질 정도로 지구촌 사람들은 모바일기기에 열광하고 있다. 이 기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확장성을 넓혀주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물건이 액세서리다.

이 대표는 아이폰과 갤럭시 스마트폰이 뜨면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다는 질문에 “이 바닥은 가늘고 길게 보는 시장”이라며 재치있게 받아쳤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액세서리 시장은 25조원 규모였고 3년 뒤 40조원의 빅마켓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명 액세서리 업체 4~5곳을 총괄했다.

=2000년 초반까지는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솔루션 분야에서 일했다. 그러다 ‘셀빅’이라는 PDA 회사에 입사하면서 액서서리와 PDA폰(지금 스마트폰의 시초)을 경험했고 이후 아이리버, 벨킨코리아, 애니모드, 타거스 등 주변기기 전문회사에서 사업 확대 업무를 해왔다.

운이 좋아서 액세서리 산업에 오랜 시간 몸담고 있는데 비단 이 분야가 아니라도 한 곳에서 10년 이상 경험을 쌓으면 전체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여유를 갖고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생긴다.

-아이폰6와 플러스가 대박났다. 타거스 매출도 늘지 않았나.

=타거스에서는 아이폰6 플러스의 디자인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그립케이스’를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립케이스를 장착하면 제품이 떨어져 액정이 깨지는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타거스 하면 가방이 떠오른다. 이 분야 역시 경쟁이 심하다.

=지난 30년동안 전세계적으로 3억개 이상 판매됐다. 무엇보다 가방의 기본인 제품 보호, 내구성, 착용감이 뛰어나다. 아울러 해외직구를 할 필요성이 없는 합리적인 가격, 젊은 디자인과 색상도 강점이다.

리복 출신의 디자인 부사장이 합류하면서 ‘디자인도 예쁜’ 타거스가 됐다.

-액세서리 시장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쪽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액서서리 산업은 의외로 복잡하다. 단순히 상품만 고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플랫폼이 시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또 경쟁이 심화돼 어떻게 판로를 개척해야 할지에 대한 전략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제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사업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 분야는 쉽게 말해 “앞으로 남지만 뒤로 손해보는 사업”이다. 제품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재고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많이 파는 것보다 적절한 수량을 판매하는 게 핵심이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이혁준 한국타거스 대표는 액세서리 산업에 대해 “가늘고 길게 갈 수 있는 몇 안되는 시장”이라며 호탕하게 웃었다. /한국타거스 제공

SK텔레콤, ‘파트너스데이’ 개최 SK텔레콤은 18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30여개 협력업체를 초청한 가운데 ‘2014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 /SK텔레콤 제공

황장규 회장, ITU-UNESCO 브로드밴드 위원에

황창규(사진) KT 회장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네스코(UNESCO)가 공동 주관하는 브로드밴드 위원회의 ‘브로드밴드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18일 밝혔다.

황창규 회장은 지난 11일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업자 연합체인 GSMA의 이사회 멤버로 선임된데 이어 글로벌 통신 대표 협의체인 ITU-UNESCO 브로드밴드 위원회 위원으로도 선임됐다.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반기문 UN 총장의 주도로 2010년 설립돼 전세계 브로드밴드 인프라와 디지털 개발 촉진을 지원하는 글로벌 통신 대표 협의체다. 각국 정상 등 정부 및 정책 관료 뿐만 아니라 시스코 및 텔레포니카, 바티 에어텔 등 글로벌정보통신기술(ICT)회사 최고경영자(CEO), UN 및 ITU 등 국제기구 대표, GSMA 사무총장, 학계 저명인사 57명으로 구성된 권위있는 단체다.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르완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과 칼로스 슬림 재단의 칼로스 슬림 헬루 이사장이 공동 의장이다. ITU의 하마둔 뚜레 사무총장과 UNESCO의 이리나 보코바 사무총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고 있다.

하마둔 뚜레 ITU 사무총장은 “황창규 회장이 글로벌 ICT 산업의 전문가로서 탁월한 식견과 혁신적인 한국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브로드밴드 위원회의 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황창규 회장은 “전세계 브로드밴드 인프라와 디지털 개발 촉진을 지원하는 ITU-UNESCO 브로드밴드 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KT의 기가토피아(GiGAtopia) 비전을 전세계에 전파해 대한민국의 위상과 통신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한편 황창규 회장은 내년 2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브로드밴드 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GSMA 이사회와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으로 글로벌 통신 리더십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기자 ljy0403@

이중근 부영 회장 ‘광복 1775일’ 출간

이중근(사진) 부영그룹 회장이 18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 ‘광복 1775일’을 출간했다.

이 회장이 설립한 출판사 ‘우정문고’를 통해 펴낸 ‘광복 1775일’은 1945년 8월 15일 광복부터 1950년 6월 25일 6·25전쟁 발발 전야까지 1775일 동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본군의 항복으로 맞이한 광복, 미군정 수립,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 농지개혁 등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이 회장의 기억을 생생하게 담았다는 평가다.

이 책은 2546페이지 분량의 상·중·하권 묶음집과 3512페이지 분량의 10권 묶음집 등 두 종류로 출판됐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는 6·25전쟁 발발부터 정전협정까지의 국내외 정세 등을 일지형식으로 기록한 1050여 페이지 분량의 ‘6·25전쟁 1129일’을 출간했으며, 지난달 400여 페이지 분량의 요약본을 펴낸 바 있다.

이 회장은 “우리 역사를 후손들에게 있는 그대로 바로 알게 하는 것이 나이 든 사람들의 의무”라며 출판 소감을 밝혔다.

/김두탁기자 kimdt@

후지제록스, 차세대 MPS 아태지역 공급

후지제록스는 자사 MPS(통합문서관리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한 ‘차세대 MPS’를 한국·일본·싱가포르·호주·홍콩 등 일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공급한다고 18일 밝혔다. MPS는 기업의 문서 프로세스를 분석해 출력기기와 솔루션을 최적화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후지제록스는 2007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아태지역 MPS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차세대 MPS는 모바일과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도 고객이 보다 효율적인 문서 환경을 통해 생산성 향상, 보안 강화, 비용 절감의 효과를 볼 수있도록 첨단 분석툴을 활용한 문서관리 컨설팅과 아웃소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에게 시간과 장소에 상관 없이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이며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문서 환경을 구축해준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내복 입고 테니스 쳐보셨나요~"

X박스 원 키넥트 써보니

"아빠, 제가 스매싱하는 것 보셨어요? 정말 잘하죠!"

연일 몰아치는 한파 탓에 집안에서만 뒹굴뒹굴하던 아이들이 갑자기 활기를 되찾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비디오 게임기 'X박스 원'을 실행시켜주니 내복 바람으로 테니스를 치고 볼링을 한다며 거실을 운동장처럼 뛰어다녔다. 실내 온도가 20도를 넘지 않았는데도 30분정도 지나니 아이들의 얼굴에서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X박스 원 '키넥트 스포츠 라이벌' 테니스 장면.

30분만 즐겨도 땀이 줄줄… 겨울에도 건강 OK

◆스포츠 자세 교정에도 도움

'X박스 원'이 집안에 들어온 후 달라진 주말 풍경이다. 조그만 추워도 이불 속으로 파고들던 아이들이 게임을 하겠다며 준비운동까지 한다. 이같은 변화는 'X박스 원'이 단순한 게임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동작 인식 기기인 키넥트(Kinect)와 연동해 손가락이 아닌 온몸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타이틀인 '키넥트 스포츠 라이벌'은 테니스, 축구, 볼링, 타겟 슈팅, 클라이밍, 웨이크 경주 등 6종목을 체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온몸을 이용해 실제 스포츠를 즐길 때와 똑같은 동작을 취해야 이길 수 있다.

예를들어 테니스의 경우 서브를 넣는 동작부터 해야 하고 볼링을 할 때는 공을 손에 잡는 자세를 정확히 잡아야 점수가 올라간다. 타켓 슈팅은 총쏘는 동작을, 웨이크 경주는 제트보트를 타는 포즈를 제대로 해야 한다. 성의없이 엉성하게 동작하면 점수를 바로 빼앗긴다.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자세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부 초등학교에서 키넥트를 활용해 체육수업을 하고 있다는 MS의 설명이 이해가 가는 대목이다.

◆심박수까지 측정…운동효과 굿

추운 날씨를 핑계삼아 운동을 멀리하던 와이프도 키넥트 피트니스에 만족감을 표시했다. 멋진 복근을 자랑하는 전문 강사에게 맞춤형 트레이닝을 받는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원하는 운동을 선택해 따라하면 동작이 얼마나 일치하는 지를 바로 보여준다. 특히 심박수까지 알려줘 얼마나 운동효과가 있는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키넥트 피트니스를 하루 30분씩 2주일간 따라했더니 몸무게가 2kg나 빠졌다고 와이프는 놀라워했다.

하지만 모든 조작 명령을 손짓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모드 전환 등은 상당한 '참을성'이 필요했다. 아이들이 신나서 뛸수록 층간소음에 대한 걱정도 덩달아 커졌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서머너즈 워' 아이템 얻는 비법 있네~

구글, 기프트 카드 구매 이벤트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를 사면 '서머너즈 워' 아이템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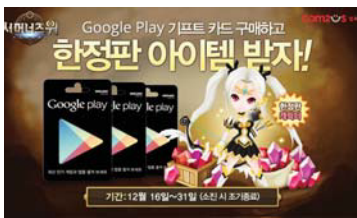
모바일 게임 기업 컴투스는 RPG(역할수행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서 구글플레이기프트카드와 공동 이벤트를 이달말까지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Google Play 기프트 카드 구매하고
한정판 아이템 받자!

이번 이벤트는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를 구입한 후 뒷면 19자리 번호를 이벤트 사이트(google.posagiftcard.co.kr)에 입력하면 문자메시지(SMS)로 프로모션 코드 번호를 발급받는 방식이다. 이 번호를 구글플레이 '사용' 메뉴의 '코드 사용하기'에 기입하면 기프트 카드 금액에 따라 게임 캐시인 크리스탈을 받을 수 있다. 기프트카드 금액이 3만원 이상인 유저에게는 프로모션 한정판 고급 캐릭터인 빛 속성 '마법 궁사'도 준다.

한편 지난 11월 국내 첫 선을 보인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는 구글플레이에 등록된 유료 애플리케이션·게임을 신용카드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선불형 결제 수단이다. 만료 기간이 따로 없고 구글 웹이나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서머너즈 워 구글플레이 기프트 카드는 전국 GS25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국명기자

크리스마스 아이템 선물 '봇물'

아이온·쿵푸펫·아이돌 드림 등 이벤트 풍성

루돌프 아이템, 인기 캐릭터 공개…. 영하 날씨에도 게임업계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뜨겁다.

겨울방학과 맞물리는 크리스마스 시즌은 게임 이용률이 치솟는 게임업계 최대 성수기다. 매년 연말마다 각 기업은 다양한 업데이트와 크리스마스 이벤트로 이용자 확보에 나선다. 크리스마스 특별 아이템으로 개성있는 볼거리를 제공하는 업계 소식을 소개한다.

엔씨소프트는 PC 온라인 게임 '아이온'에서 '운명의 바람: 랩소디1 신세계' 업데이트와 연말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랜만에 게임에 접속한 휴면 이용자가 특정 코드를 입력하면 '날아라 스노우보드 러브메이커' 아이템을 받는다. 활동 이용자에게는 '반짝이는 루돌프 코' 아이템이 증정된다. 31일까지 '전설의 눈덩이를 찾아서' 이벤트에 참여하면 이벤트 상자로 교환할 수 있는 세 종류의 눈덩이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컴투스의 모바일 게임 '쿵푸펫'은 '크리스마스 미션 섬' 이벤트를 벌인다. 26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 업데이트는 도둑이 훔쳐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타 마을의 아이들에게 돌려준다는 이야기를 지닌다. 이용자는 과제를 해결할 때마다 신규 아이템 '도둑 그린캣'과 '산타 멍멍이'를 구할 수 있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의 PC 온라인 게임 '이카루스'는 크리스마스 맞이 '눈사람의 습격' 이벤트를 31일까지 진행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산타 양말을 눈사람 상자로 교환한 후 눈사람을 소환해 사냥을 하면 전설 등급의 무기, 루돌프 의상을 받는다. 이벤트 기간 내 접속하는 이용자 전원은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를 받는다.

연말 맞이 신규 캐릭터 공개도 눈에 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아이돌 육성 모바일 게임 '아이돌 드림:걸즈' 업데이트를 통해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걸그룹 '걸스데이' 실사 캐릭터를 추가했다.

'아이돌드림:걸즈'를 개발한 NHN엔터테인먼트의 박준영 PD는 "현재 걸스데이는 멤버 개인 활동 중이라 완전체의 걸스데이를 만나기 쉽지 않다"며 "올겨울은 게임을 통해 걸스데이를 접하려는 팬들의 관심이 뜨거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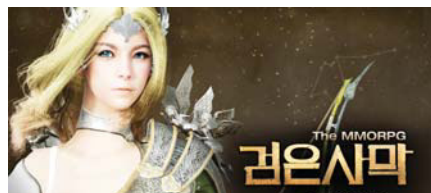
/장윤희기자 unique@

'검은사막' OBT 첫날 RPG 1위

추가 캐릭터만 50만개 생성

MMORPG '검은사막'이 흥행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다음게임은 17일 공개 서비스(OBT)에 들어간 '검은사막'이 PC방 점유율 분석기관인 게임트릭스 순위에서 단숨에 종합 4위, RPG 장르 1위까지 올랐다고 18일 밝혔다. 2012년 6월 이후 신작 게임이 RPG 장르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은사막 홈페이지 순방문자는 100만명을 훌쩍 넘겼다. OBT 첫 날에만 신규 캐릭터가 50만개나 더 생성됐다. 게임을 체험한 유저들은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전투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검은사막의 독특한 시스템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어느새 몰입하게 되는 매력이 있다", "그래픽이 아름다워서 눈이 호강한다"는 등의 호평을 남겼다.

다음게임 관계자는 "주말과 연휴가 몰려있는 연말까지 더 많은 유저가 몰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며 "늘어나는 유저에 대응해 서버(월드) 1대를 추가했으며 대기열과 렉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국명기자

겨울을 녹이는
한잔의
부드러움
처음
처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
천연미네랄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알칼리환원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홈쇼핑도 '딜'에 꽂혔다

모바일 최적화 환경 구축

홈쇼핑 업계가 모바일 시장이 커지자 '딜' 방식의 쇼핑 환경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딜은 소셜커머스 등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사용해왔다. 일정 시간 동안 엄선한 상품만 특가로 판매해 기존 단순 나열하는 방식의 쇼핑에서 피로감을 느꼈던 소비자들에게 호응이 높다.

홈쇼핑 업계에게는 딜 쇼핑이 특가로 판매해 모바일로 고객을 유입하고 TV 방송 상품과의 연계성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딜 쇼핑이 모바일 쇼핑 환경에 최적화된 방식이라고 업계 관계자는 입을 모은다. 모바일 이용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고 즉흥 구매 성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는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새로운 서비스 론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GS샵은 지난해 말 기획전 위주의 기존 상품 판매 방식에서 '오늘의 딜'로 전면 확대·개편했다. 커지고 있는 모바일 시장에 대한 대응으로 이 같은 운영 방식을 택한 것이다. 모바일과 온라인 몰에 '오늘의 딜'을 선보이고 특가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 회사는 딜 위주의 개편과 TV 방송 상품과의 연계 등을 올 3분기 모바일 누적 취급액이 191.9% 신장한 4720억원을 기록했다.

CJ오쇼핑은 소셜커머스 CJ오클락을 2011년부터 운영해왔다. 소셜커머스 3사와 달리 TV 상품에 대한 특화 서비스 창구로 이를 활용하고 있다. 오클락은 11월 기준 지난해 보다 17% 외형 성장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좋은 성과를 거둔 방송 상품이나 PB 상품 등을 모아 판매하는 'TV 아울렛' 서비스를 시작했다.

롯데홈쇼핑도 지난 5월 '땡큐딜'을 첫 도입했다. 인터넷 쇼핑몰 '롯데 아이몰'에서 운영 중인 큐레이션 서비스로 130여 개 제품을 선정해 판매 중이다. 판매 상품은 지난 판매 이력과 할인 혜택, 단독 상품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교체하고 있다.

한편 현대홈쇼핑은 1 대 일로 상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의 쇼핑 서비스 론칭을 준비 중이다. 현재 블록버스터 딜을 통해 특가 판매를 목적으로 매일 다른 상품을 한정해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 이용 고객들은 PC에서처럼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쇼핑몰에서 제시한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 모바일 화면을 스크롤 하면서 전시된 상품을 훑어보는 것이 기본 쇼핑 방식"이라며 "고객들에게 상품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고객에게 가치를 제안할 수 있는 모바일앱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와인바, 연말 고객잡기 마케팅

가격은 낮추고 품격은 높게…무료 시음 등 행사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몰려있는 연말은 와인 바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와인 한잔에 가까운 지인들과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눌만한 장소로 제격이기 때문.

와인업계에서도 연말 특수를 잡기 위해 크리스마스 스페셜 세트와 특별 프로모션 등 다양한 연말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와인 한 모금에 분위기도 잡고 특별한 가격 할인도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 혜택을 제공하는 와인 바들을 소개한다.

서울 신사동에 자리잡은 와인 다이닝 바 '18Steps'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 메뉴로 '스페셜 세트 메뉴'를 24일, 25일 이틀간 선보인다. 이번 세트 메뉴는 와인과 함께하기 좋은 메뉴로 구성된 '댄싱 루돌프 세트', '디어 산타 세트'로 메뉴에서부터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다.

목동의 와인 바 '디오벵'은 와인을 2만원에서 10만원대로 저렴하게 선보이고 있어 실속을 챙기는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특히 최근 매장을 리뉴얼하면서 2030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주목 받고 있다. 12월 한 달간은 오후 6~8시 사이에 방문하는 고객 대상으로 와인 또는 음식 메뉴를 50% 할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연인·친구와 함께 운세를 볼 수 있는 타로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강남에 있는 더 팀버 하우스는 전문 셰프가 준비하는 프리미엄 일식 메뉴와 주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고급 와인 바다. 24일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일식 뷔페 요리'와 함께 러시아 황제가 애호하는 샴페인으로 명성이 높은 '루이 로드레 샴페인' 한 잔을 12만원에 즐길 수 있는 '페스티브 일식 뷔페' 이벤트가 진행된다.

/정영일기자 prms@

속 노란 배추 이마트가 일반 배추보다 베타카로틴 함량이 148배 높고 속이 노란 빛을 띠는 신품종 배추인 '베타 후레쉬 배추'를 18일부터 전국 전점에서 1980원(1포기)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 배추는 항산화작용과 피부노화 방지는 물론 비타민A 생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베타카로틴을 강화한 기능성 배추다. 일반 배추보다 수분함량이 낮고 당도가 좋아 아삭한 식감의 쌈 채소로 적당하다고 마트 측은 설명했다.

/이마트 제공

유스랩, 연말연시 건강선물 추천 베스트

연말연시를 맞아 디알엑스플러스(대표 차지운)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 '유스랩(www.youthlab.co.kr)'이 다양한 연령층에 고루 선물로 활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선보였다. 이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자사의 회원에 가입하면 스페셜 회원으로 등록해준다. 스페셜 회원에게는 내년 6월 30일까지 유스랩 전 제품을 현재 할인된 가격에서 20%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문의 1544-0760)

◆맑은 눈에 '비전스마트슈프림'

유스랩(YouthLab)에서 독점 판매하고 있는 '비전스마트슈프림'은 전 세계인의 '눈 전문' 건강기능 식품이다. 뉴질랜드 블랙커런트는 일반 블루베리보다 안토시아닌이 4.3배, 비타민C가 10배, 폴리페놀이 2.5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효과가 높다. 연말 38% 할인된 가격인 8만원(2개월 분·한 병)에 판매한다.

◆아름다움을 '에버콜라겐UV케어'

겨울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이너 뷰티제품으로 유스랩의 '에버콜라겐 UV케어'를 추천한다. 먹는 콜라겐 제품으로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켜주며 눈가 주름 개선과 피부탄력과 보습에 효과가 뛰어나다. 이 기간 6만9000원(4주 분·한 병)에 특별 할인 판매한다.

◆튼튼한 위를 위한 '슈퍼위가드'

감사한 분들의 속사정까지 챙기고 싶은 이들에게 따끈한 신제품 '슈퍼위가드'를 추천한다. 이 제품은 속쓰림·역류·통증 등 위로 인한 불편한 증상을 개선시켜준다. 헬리코박터균의 증식 억제 기능을 식약처로부터 인정 받았다. 7만9000원(1개월 분·한 박스)에 특가 판매한다.

◆나를 위해 선물 '판도라다이어트'

새해마다 다이어트 결심만 하고 실패하기 일수였던 사람들에게 유스랩이 '변정수의 뷰티케어-판도라다이어트'를 권한다. 식물 성분인 '판두라틴(핑거루트 추출분말)'을 주원료로,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피부 탄력효과도 있다. 비타민 5종(비타민E·B1·B6, 나이아신, 판토텐산)이 일일권장 섭취량 100% 첨가돼 있다. 50% 할인된 6만4500원(1개월 분·한 박스)에 판매한다.

/정영일기자

단일공 로봇수술, 여성 큰 호응

이대목동병원 "배꼽 1곳만 절개… 흉터 없고 회복 빨라"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에서 시행중인 단일공 로봇 수술이 자궁과 난소에 양성 종양을 가진 젊은 가임기 여성 환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5건의 단일공 로봇수술을 진행한 가운데 12건이 가임기의 젊은 여성 환자였다고 18일 밝혔다.

단일공 로봇수술은 기존 로봇수술이 최소 3곳을 절개하는 것과 달리 배꼽 1곳 만을 절개해 로봇 팔을 넣어 종양을 제거하는 고난이도의 첨단 수술법이다. 배꼽을 통해 로봇 팔을 환자 뱃속으로 집어넣어 종양을 제거하기 때문에 흉터가 작고, 상처가 안보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흉터가 작기 때문에 환자에게 미용상 좋고 통증이 덜해 회복 시간도 빠른 이점이 있다. 또 로봇으로 자궁·난소 종양만 제거,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수술이 가능해 미혼이거나 임신을 앞두고 있는 가임기 여성 환자에게 최적의 수술법이라고 병원 측은 설명했다.

기존의 단일공 복강경 수술은 적용할 수 있는 양성질환이 제한적이고 기구들 간의 충돌, 수술 시야의 한계 등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단일공 로봇수술은 복강경 수술보다 집도의의 수술 시야가 10배나 확대돼 정확하고 안정적인 수술 공간 확보로 더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종양이 다른 장기와 유착된 사례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병원 관계자는 덧붙였다.

문혜성 센터장은 "최근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빠른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위해 최소 침습수술이 늘어나고 있다"이라면서 "단일공 로봇 수술은 좁은 배꼽을 통해 수술 기구를 넣다 보니 다른 로봇 수술에 비해 어려운 편이지만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산부인과 분야에서만 문혜성 로봇수술센터장을 비롯한 3명의 여성 교수가 포진해 자궁의 종양과 난소 종양을 비롯한 산부인과 질환과 여성암 분야의 로봇수술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뷰티·패션업계 '아듀 세일'

인기 제품 최대 반값에

뷰티·패션업체들이 연말을 맞아 '2014 아듀 세일'을 잇따라 벌이고 있다. 한 해 동안 가장 인기를 끌었던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메이크업브랜드 에스쁘아는 21일까지 '굿바이 2014 세일'을 진행한다.

품목에 따라 최대 50% 저렴하게 선보이며, 에스쁘아 멤버십 회원이면 누구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스쁘아는 세일 기간 눈여겨볼 제품으로 립스틱 '노웨어'와 '누드 쿠션 파운데이션' '프로 인텐스 클렌징 오일' 등을 꼽았다.

화장품 브랜드 자연이 만든 레시피는 31일까지 슬로가닉 클렌저·동해수 모이스처크림·비타 A 캡슐 앰플 등 올해의 베스트 셀링 제품을 30% 할인한다.

이 기간 베스트 제품 구매 고객에게는 2PM 우영의 사진이 담긴 '알로에 마스크팩'을 선물로 준다.

제일모직의 SPA브랜드 에잇세컨즈는 내년 2월 11일까지 '슈퍼 세일'을 실시한다.

이 기간 윈터웜을 비롯해 리얼라큰 다운점퍼·코트·패딩·니트 등을 최대 반값에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전국 29개 에잇세컨즈 매장은 물론 온라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신발 SPA브랜드 슈스파는 겨울 시즌오프 세일에 돌입했다.

2014년 가을·겨울 신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행사로 슈스파 전 지점에서 제품 소진 시까지 진행한다. 이 기간 패딩 부츠·슬립온·백팩 등 신발과 가방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2015년 다이어리를 선물로 준다.

/박지원기자

연말 모임엔 '코트 스타일'이 젊잖아

패딩·다운점퍼 금물… 소재·디자인 따라 깔끔 분위기 연출

직장 내 크고 작은 회식부터 부부동반 비즈니스 모임까지…. 12월 비즈니스맨들은 각종 모임에 참석하느라 바쁘다.

추운 날씨 탓에 두꺼운 패딩과 다운점퍼에 먼저 손이 가지만, 격식 있는 자리나 중요한 날에는 깔끔한 코트가 정석이다. 특히 최근 출시된 코트들은 안감에 다운소재를 활용하거나 절개선을 없애는 등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진화하고 있어 입기에 부담이 없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올 겨울 남성복 시장에서 코트의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늘었고, 소재·컬러·실루엣도 다양해졌다. 또 따뜻하면서 가벼운 아우터를 찾는 남성 소비자들 덕에 캐시미어·울 소재를 활용한 코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남성 브랜드 마에스트로 관계자는 "남성 고객들도 과거와 달리 코트의 소재·디자인·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매하는 추세라 관련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설명했다.

◆터틀넥·스웨터로 중후함 어필

코트를 고를 때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디자인과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색상은 밝은 계열보다 블랙·그레이·네이비·카키 등 채도가 낮은 코트를 입어야 지적이면서도 진중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 요즘 롱코트가 인기지만 무턱대고 유행을 따라 했다가는 자칫 키가 작아 보일 수 있다. 키가 작은 편이라면 코트 기장은 무릎 위로 올라오고, 카라 역시 깊게 파이지 않고 짧은 디자인을 골라야 한다.

클래식한 코트에 셔츠·니트 등을 겹쳐 입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셔츠 위에 카디건을 걸친 후 얇은 패딩 점퍼나 베스트를 덧입은 뒤 코트를 착용하면 한결 따뜻하면서도 개성을 나타낼 수 있다.

/박지원기자

롯데제이티비 '키즈홀리데이 괌' 출시

롯데그룹 여행기업 롯데제이티비가 '키즈홀리데이 괌' 상품을 출시했다.

상품은 아이들도 즐거울 수 있는 여행을 제공하기 마련됐으며 추천 코스와 함께 특별 혜택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괌 시내의 모든 호텔에서 자유롭게 조식을 즐길 수 있는 조식 쿠폰과 괌 전역에서 이용 가능한 와이파이 쿠폰이 주어진다.

또 총 23종의 레스토랑에서 할인 혹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은 여행의 즐거움을 더한다.

"봄에는 마스크, 여름 젤리슈즈"

올해 계절별 인기 상품은?

온라인 몰에서는 올해 계절 별로 다양한 상품이 인기를 끌었다. 특히 날씨 영향으로 시즌성 상품이 많이 판매된 가운데 경제적이고 간편한 상품의 판매가 늘었다.

G마켓은 18일 올 한해 계절 별 인기 상품을 분석해 발표했다.

올봄에는 미세먼지와 황사 대비 상품 판매가 폭증했다. 3월부터 5월까지 조사 결과 액상형 손 세정제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판매가 22배 이상(2131%) 증가했고 마스크·황사 용품은 6배 이상(544%) 상승했다.

한편 가전 시장에도 황사의 영향을 받아 같은 기간 공기청정기는 85%, 자동차용 실내 공기 청정·방향제는 60% 판매가 증가했다.

유난히 날씨 변덕이 심했던 여름에는 수륙양용형 제품이 인기를 끌었다. 젤리슨들의 경우 6월부터 8월까지 판매량이 전년 대비 7배 이상(603%) 급증했으며 우의로도 사용 가능한 바람막이는 여성용과 남성용이 각각 37%, 19%씩 판매가 늘었다.

황금연휴가 포함돼 있던 가을에는 여행 상품이 많이 팔렸다. 9월부터 11월까지 여행·항공권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46%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도 놀이동산·아쿠아리움·동물원·글램핑·캐라반·오토캠핑 등은 2배 이상(1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캠핑 용품도 황금연휴 특수를 누렸다. 캠핑 식기·조리 도구는 101% 판매가 증가했으며 아이스박스도 72% 판매량이 뛰었다. 이 외에 캠핑·야외용 테이블과 텐트는 각각 39%, 33% 증가했다.

올겨울에는 뽁뽁이·핫팩 등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방한 용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 G마켓에서는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12월 들어 문풍지·단열 에어캡 판매가 지난해 보다 76% 증가한 가운데 세부 품목으로 창문형 바람막이가 368% 판매량이 상승했고 난방 텐트·실내용 텐트 판매는 175% 늘었다. 이 외에 단열 시트와 보온 필름 판매는 63% 판매율이 신장했다.

외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한용 패션 상품도 인기다. 지난해 보다 스포츠 넥워머는 67%, 니트·숄머플러는 64% 판매가 늘었다.

강선화 마케팅실 실장은 "소비패턴이 기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기상 상황에 따라 인기상품이 다양했다"며 "올 겨울엔 폭설과 기습적인 한파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간편하고 저렴해 효율성이 높은 방한 소품이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도서정가제 한 달…온라인 판매↓

10%대 줄어들어…"타격 어느 정도 예상했다"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첫 달 온라인 서점에서는 도서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소비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 좀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도서정가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간 주요 온라인 서점의 판매 권수와 매출이 하락했다. 예스24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도서 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판매 권수가 17.8% 감소했다고 밝혔다. 총 25개 분야 중 19개 분야에서 판매가 줄었다. 같은 기간 인터파크 도서도 판매액과 권수가 각각 10%, 18.9% 하락했다.

또 교보문고는 개정 정가제 시행 이후부터 15일까지 판매 권수가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시행 후 분야별로 수요가 갈렸다.

예스24에서는 개정안 시행 전 할인 폭이 크지 않았던 건강과 취미 분야가 11.1% 작년 보다 판매가 늘었고 재정가 도서 영향으로 전집도 2.5% 소폭 상승했다. 반면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수혜가 예상됐던 중고도서는 매출에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알라딘 중고서점 관계자는 "개정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기대를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매 하락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수순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 전부터 오프라인 보다 온라인 서점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며 "오프라인 서점보다 할인 폭이 컸던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따라 발간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구간과 초등학생 학습 참고서, 실용서 등이 정가제 대상에 포함됐고 할인율이 19%(직·간접 할인)에서 15%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온라인 서점은 할인율을 조정하고 간접 할인에 해당하는 쿠폰과 적립 등을 줄이거나 없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도 베스트셀러 출시나 참고서 시즌처럼 이슈에 따라 매출이 등락폭을 보였기 때문에 10% 내외 수준이면 우려할 만한 건 아니다"며 "정가제 직전에 책을 많이 구매해서 줄어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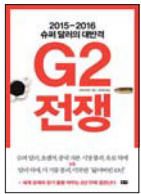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부동산 권리분석의 바다에 빠져라
김재범/스마트북스

손해보지 않는 부동산 권리분석의 원칙과 소중한 내 자산을 지키는 법, 그리고 알짜배기 경매물건을 고르는 눈을 키워준다. 이 책은 한국 부동산 경매현장의 실제 경매사건의 사례 중에서 경매 입찰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와 간과하는 점을 감안, 핵심사건들을 뽑아 '현장사례' 코너로 만들었다.

비무장지대, 곤충
김계성/세리프

멸종 위기 동식물 2급 꼬마잠자리와 왕은점표범나비를 비롯해 우단하늘소·큰주홍부전나비·풍년새우 등 다양한 곤충들이 평화롭게 모여 살고 있는 비무장지대의 곤충들을 소개했다. 407가지의 곤충 이야기들과 511장의 생생한 사진들로 구성했다.

G2 전쟁
레이쓰하이/부키

향후 몇 년간 G2(미국과 중국)의 금융 전쟁과 대결 양상을 예측하고, 통화 패권의 본질과 달러자본의 속성을 과감하고 심도 있게 분석했다. 1971년 금 본위제를 폐지한 후 미국의 국제 정치·경제 전략에 나타난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할지 전망했다.

레토릭
샘 리스/청어람미디어

수사학은 설득의 기술로, 다른 사람에게 말로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것이다. 책은 이처럼 넓은 관점에서 수사학을 조망한다. 링컨·처칠·오바마 등 정치가의 설득 비법부터 에미넴·제니퍼 로페즈의 노랫말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친숙한 예를 통해 설득의 기술을 쉽고 유쾌하게 풀어냈다.

시장 읽어주는 남자
장진혁/인사이트 북스

오픈마켓 11번가 매출 성장을 이끈 장진혁 상무가 오픈마켓 판매중개업자들과 판매중개업자가 되고 싶어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생생한 성공기를 들려준다. 이 밖에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법, 오픈마켓 MD의 역할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전한다.

음악의 기쁨
롤랑 마뉘엘/북노마드

작곡가이자 음악학자인 롤랑 마뉘엘과 피아니스트 나디아 타그린이 매주 일요일 라디오 프랑스에서 음악에 대해 나눈 대화를 옮긴 책이다. 슈베르트·쇼팽 등 베토벤 이후의 음악가들에 초점을 맞춰 대담을 나눴다. 음악언어와 음악사를 이끌어온 음악가 개인의 '억양'과 '특질'에 대한 이야기를 끌어간다. /박지원기자 pjw@

'비밀의 정원' 종합 베스트셀러 1위

예스24, 12월 3주 종합

예스24는 12월 3주 종합 베스트셀러 순위에 '비밀의 정원 Secret Garden'이 1위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tvN 드라마 '라이어 게임'에 등장하기도 한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의 심리학도서 '미움받을 용기'는 지난주에 이어 2주째 2위를 차지했다. 요나스 요나손의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은 지난주보다 두 계단 상승해 3위였다.

프랑스 베스트셀러 작가 기욤 뮈소의 신작 장편소설 '센트럴파크'는 출간하자마자 4위에 올랐다. 김난도 교수 등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트렌드 코리아 2015'는 한 계단 내려와 5위를 차지했다.

종영을 2회 앞둔 tvN 드라마 '미생'의 원작 웹툰 '미생 아직 살아있지 못한 자' 특별 보급판 세트는 6위를 기록했다.

한편 전자책 분야에서는 성인 로맨스 소설 '오피스 와이프'가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

책 속 한 컷 — 지금 당장 떠나라!

명품 가방 대신 손에 든 것은 러시아행 비행기 티켓. 이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된 러시아여행은 매일 매일 색다른 축제를 안겨주었다. 이상하게 어딘가 모르게 자꾸만 끌리는 러시아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걱정이나 두려움 따위는 미뤄두고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 – '내 안의 그대, 러시안 블루'(서현경/시그마북스) 중 –

/황재용기자 hsoul38@

14인의 달라이 라마가 주는 가르침

"달라이 라마의 역사이자 티베트의 역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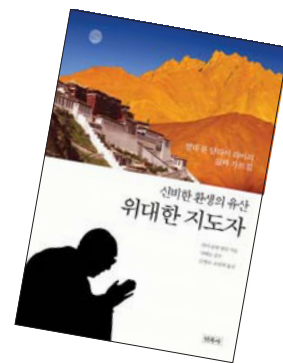
화제의 책

위대한 지도자
라마 글렌 멀린/민족사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향한 역대 14인의 달라이 라마의 삶과 가르침, 그들의 탐구에 영감을 얻기를 기원합니다."

위는 제14대 달라이 라마 뗀진 갸초(Tenzin Gyatso) 성하의 서문을 요약한 내용이다.

'위대한 지도자'는 역대 티베트 달라이 라마의 생애와 가르침(말씀)을 요약한 책이다.

현재까지 출판된 책 중 달라이 라마에 관련된 책은 80종에 이르지만 14대 달라이 라마(법명:뗀진 갸초)와 관련된 책이 대부분이다. 제1대 달라이 라마에서 현재 제14대까지 14인의 생애와 법문을 소개한 책은 이 책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다.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실질적 지도자이자 정신적 지주다. 최근 들어 티베트에 대한 인식 증가로 달라이 라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졌다. 환생 제도로 이뤄지고 있는 신비스러운 계승 방법 또한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에는 이 같은 신비스러운 과정이 생생히 담겨 있으며 역대 달라이 라마들이 티베트 역사에서 담당해온 역할과 티베트 불교 수행의 생생한 전승과 실천이 담겨 있다.

달라이 라마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역대 달라이 라마가 남긴 글과 가르침이 주는 간결하고도 함축적인 조언들은 우리의 내면을 평화로 이끌어줄 것이다. /김수정기자

무려 8억원까지 연 4% 수익률

(세전, 2014.11.17기준, 3개월물, 개인고객)

대신증권 특판 RP

장은 묵혀야 제 맛 이지만
돈은 굴려야 살 맛 납니다.

당신의 자산,
낮은 수익률에 묵히지 말고, 옮기세요.

대신이니까 크게 드립니다.

조건별 우대수익률 및 한도

구 분	자산입고 고객	신규 고객
우대수익률	연 4.0%(세전)	연 3.7%(세전)
개인한도	최대 8억원	최대 5억원
조 건	타사 ELS, 연금저축, 펀드, 채권 입고 시	체크카드 발급 및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등록 (1년이상)
비 고	자산입고 금액을 합산하여 입고금액 만큼 우대한도 부여 (단, 펀드 단독은 불인정)	당사 신규고객의 계좌개설과 우대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중도해지	중도해지시 가입시점의 수시RP 이율 적용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특별판매조건등 세부사항은 영업점 및 고객감동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당사는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이 손실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RP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RP의 만기일 이전 중도환매할 경우 당초 약정수익률보다 낮은 중도해지수익률로 지급됩니다. *RP는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가치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한국금융협회 심사필 제14-07914호(2014.11.20~2015.11.19)

'김영란법' 당신은 준비 되셨나요?

기자 수첩
조 현 정 <정치사회부 기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워낙 파급 효과가 큰 법이기 때문이다.

이 법은 청탁을 불가능하게 하고 불법화한다. '좋은 법인데 왜 쉽게 통과가 안되냐'는 생각이 들겠지만 현실은 다르다.

우리는 각종 민원이란 이름의 청탁이 온갖 관계 속에 이뤄지는 사회에 살고 있다.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인의 부탁과 가족 부탁을 모두 거절하는 냉혈한으로 살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이후 우리 사회는 그간의 방식을 모두 바꾸지 않으면 대혼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교과서'적 법안이다. 일종의 '도덕률'에 가까운 내용이 법률화되는 셈이다. 따라서 부작용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청탁은 현실에선 매일 벌어진다. 게다가 현재 정무위에서 논의되는 수정안에는 언론 종사자나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포괄적으로 포함하려 하고 있다. 정당한 민원과 부정 청탁을 구분하기 쉽지 않은 현실에서 범위까지 넓히게 되면 현실에의 적용이 가능할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많다. 법이 시행된다면 대규모로 불법 행위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

사회 정의를 실천하고 힘없고 '빽'없는 이들도 사회경제 활동에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만 우리 자신이 그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하기 전에 그런 합의가 됐는지,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킬 자신이 있는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남보다 특별 대우받고 먼저 민원을 해결하고 싶은 내안의 '이기심'을 포기할 수 있는가.

군 가산점 2% 부활되나

병역혁신위 22개 과제 권고… 복무기간 대학학점 인정 포함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현역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또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4단계인 병사 계급 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하고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해 병사 특기를 부여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병영문화혁신위가 권고한 22개 혁신 과제를 이날 발표했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22개 병영문화 혁신 권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복무기간 중징계를 받은 병사는 복무보상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병영혁신위는 각종 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해 군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군 복무자 전체에게 9학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 원격강좌 수강으로 6~9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하며 군 교육 기관 이수에 대해 2~3학점을 인정하면 군 복무를 하면서 대학 한 학기 이수 학점(약 18학점) 취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999년 헌법재판소가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병영혁신위는 병사 계급체계를 2~3단계로 단순화할 것도 권고했다. 병사 특기를 부여할 때 개인의 희망과 특성을 고려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이 제도를 육군 5개 사단에 시범 적용하라는 권고도 있었다.

/조현정기자 jhj@metroseoul.co.kr

당정, 대형마트·재래시장 공생대책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18일 회의를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대형마트 영업 제한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소비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재래 상인 생존권도 매우 중요하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공생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도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이 유통 산업의 두 축인데 (고법 판결은) 한쪽 축만 너무 강조한 것 같다"며 "대법의 판결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여러 자료를 제공하고 유통 업계 혼란이 오지 않게 각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이같은 주문에 대해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아직 2심 판결이고, 유사한 사건에 대해 달리 판결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도 있어 지켜봐야 한다"며 "(대형마트) 업체들이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자영업자들이) 너무 우려하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현정기자

박수 받으며 입장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청년위원회 회의에 입장하며 신용한 청년위원장과 대학생 등 배석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뉴스&뉴스

與 혁신위, 비례대표 석패율제 도입 검토

●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산하 공천·선거개혁 소위는 비례대표에 대한 석패율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소위는 18일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과 전략공천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이같이 결정했다. 석패율제는 한 후보자가 지역구과 비례대표에 동시에 출마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복 출마자들 중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뽑는 제도이다.

野, 27일 덕양을 위원장 현장투표로 경선

●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27일 경기 고양 덕양을 지역위원장 경선을 현장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이 지역은 손학규 전 대표 측근 출신으로 정세균 전 대표와도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송두영 전 지역위원장,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문용식 전 인터넷소통위원장, 안철수 전 공동대표 측의 이태규 당무혁신실장이 경쟁하고 있어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野 비대위원에 이석현·김성곤·원혜영

● 새정치민주연합 임시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관리체제로 전환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정세균·박지원·문재인 비대위원이 사퇴한 지 하루만인 18일 후임 비대위원으로 이석현 국회부의장과 김성곤 전대준비위원장,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임명했다.

"쇄신 요구 청와대 귀 닫지 않아"

"언론서 제시하는 방안·의견 잘 듣고 있다"

청와대는 18일 정치권 등의 쇄신 요구에 대해 "여론을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정치권에서 개각이나 인적 쇄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라고 묻자 "쇄신 요구에 대해 (청와대가) 귀를 닫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여러 쇄신안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제시하는 방안들, 고귀한 의견들에 대해 눈여겨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민 대변인은 "어제(17일) 제가 드렸던 답변을 다시 해야할 것 같다"는 전제 아래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17일 민 대변인은 조만간 총리와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한 인적 쇄신 단행 가능성을 점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그런 움직임을 알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민 대변인의 이날 언급은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 파문과 관련, 당장의 인적 쇄신 등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개각을 포함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정치권과 여론의 요청에 청와대가 주목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현정기자

100만원 넘는 텔레뱅킹 이체시 추가 인증

금융위 내년 3월부터…"대포통장 처벌·정보보안 강화"

내년 3월부터 하루 100만원이 넘는 돈을 텔레뱅킹으로 이체하려면 문자메시지(SMS)나 자동응답전화(ARS) 등 추가 본인인증을 거쳐야 한다.

또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통장으로 현금인출을 할 경우 현행 600만원이었던 한도가 일정금액 이하로 조정되며, 대가 없이 대포통장을 만들거나 전달할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미래부와 법무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 7차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 수립한 '신·변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보완대책'의 후속 방안이다.

대책안은 대포통장과 전화번호, ATM 등 전자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전자금융사기의 피해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오는 하반기부터는 텔레뱅킹을 할때 3~5개의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 이체한도가 300만~500만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텔레뱅킹의 보안강화를 위해 미리 지정한 전화번호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지정제를 의무화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 사용고객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텔레뱅킹으로 하루 100만원 이상 거래를 할 경우 문자메시지(SMS) 등을 통해 추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텔레뱅킹 채널과 계좌잔액조회 서비스 보안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전화를 통해 계좌잔액을 조회할 때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생년월일,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외에 보안카드 등의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방안을 은행별로 검토토록 했다.

불법대출,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범위도 확대된다.

특히 범죄 이용목적이나 범죄 이용될 것을 알면서 통장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와 보관·전달·유통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아울러 대포통장을 주고받거나 보관, 유통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정부가 강제로 사용을 중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여기에는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에 활용된 전화번호도 포함된다.

이밖에도 1년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통장은 CD·ATM 기기에서 현금 인출시 600만원이던 한도가 일정금액 이하로 낮아진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하얗게 변해 버린 새만금 18일 서울 아침기온이 영하 13도를 기록하는 등 한파가 절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포발 여수행 아시아나항공에서 바라본 전북 군산 새만금 인근이 최근 내린 눈으로 하얗게 변해있다. /연합뉴스

"스턴트맨 촬영중 부상… 산재 인정"

드라마 촬영 중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스턴트맨도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스턴트맨 장모씨가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씨는 2010년 한 지상파 드라마에 기마병 역할로 출연했다가 촬영 도중 말에서 떨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유주영기자

전문대 현장실습학기제

현장·취업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이 발표됐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대학생이 방학을 포함해서 한 학기 동안 기업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받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시범도입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또 기업뿐 아니라 1인 명장을 사사하는 것도 현장실습으로 인정하는 '고숙련기술 도제 프로그램'이 전문대에 도입된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명장 22개 분야 및 전통문화 계승 분야가 시범 운영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점과 학위가 부여된다.

정부는 4년제 대학생에 대해서도 최소 6주 이상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주영기자

조현아 등 대한항공 임원 통신기록 압수

'땅콩 회항'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이번 사태를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전날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도 통신기록을 압수했지만, 이번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6일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기간을 더 늘려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신기록 압수 대상 인원도 더 늘렸다.

영장을 통해 발부받은 통신자료에는 시간과 날짜 등 통화기록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 검찰에서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거짓진술 요구 등을 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무장이었던 박창진 씨는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의 전 과정에 회사가 개입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유주영기자 boa@

구제역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18일 충북 음성과 청주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이동필 농림부 장관(사진 왼쪽)이 이날 충남 천안시청에 마련된 구제역특별방역대책본부를 방문해 구제역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한 단계 격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 합의했지만…

세부 협의 난항 전망

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전면 수용해 사용방식으로 재개하는 데 합의했지만, 법적분쟁 처리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해 세부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구룡마을은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의 일부 도입을 주장한 서울시와 현금으로만 보상하는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내세운 강남구 간 갈등으로 지난 8월 재개발사업 구역이 실효됐다.

서울시는 18일 지난달 구룡마을 화재사고를 계기로 거주민 보호를 위해 정치적 논쟁보다는 사업 재추진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과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세부 일정은 강남구와 협의하겠다며 강남구에서도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부탁했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개발 방침을 발표하며 개발 논의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환지방식 일부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강남구가 토지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 수년째 개발사업이 표류됐다. /유주영기자

한국장학재단 연탄 봉사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은 18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지역의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에 연탄나눔 봉사를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했다.

재단은 에너지 빈곤층인 지역 독거노인, 조손가정, 장애우 가정 10가구에 직접 150장씩 연탄 나눔을 실시하고 2000여장은 밥상공동체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에 전달해 연탄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에 전달해 주도록 후원했다.

또한 이날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가 추진하는 '2014 서울 저소득 농아인 사랑 나눔 행사'에 라면 60박스, 내복 60벌을 전달해 저소득 취약계층 농아인과 농아인 학생이 받을 수 있도록 후원했다.

이어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에 위치한 다일공동체 운영급식소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점심 배식 봉사활동과 함께 쌀 1000kg을 기부했다. /유주영기자

metro Russia

metro Bolivia

똥보 군경 제복 착용 금지!

볼리비아 경찰과 군대가 '살과의 전쟁' 중이다. 과체중 군경의 제복 착용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최근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적절한 몸매를 유지하는 것은 국방·경찰 업무를 맡은 사람의 책무"라며 앞으로 과체중 경찰관의 승진을 금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루벤 사아베드 국방 장관도 "군인은 육체적, 정신적 측면에서 모두 준비된 상태여야 한다"며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했다.

metro Brazil

리우시 450주년 새해 축제 화려

'헤베이옹'이라 불리는 리우 데 자네이루 시의 신년 맞이 행사가 내년 맞이하는 리우 시의 450주년으로 더욱 다채로워진다. 내년 헤베이옹 축제 테마는 '리우 시의 450주년'이며 카타르의 불꽃 쇼에서 본딴 화려한 불꽃과 관련된 구경거리를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Rio 450'이라는 문장이 바다에서 50m 떨어진 공중에 하늘색 불꽃으로 수 놓아지는 장면이 압권일 것으로 보인다.

일일 '산타 아가씨' 찾기 '화제'

메트로 모스크바 X-마스 깜짝 이벤트… 시민과 선물 나눠주며 즐거운 시간

러시아 전래 동화에서 산타클로스 '데드 모로즈'는 손녀인 '눈 아가씨' 스네구로치카와 함께 다닌다. 스네구로치카는 예쁜 외모에 푸른색 옷을 입고 다녀 눈의 요정을 연상시킨다. 최근 모스크바 도심에 손녀를 애타게 찾는 산타가 나타났다. 메트로 모스크바가 시민을 위해 준비한 깜짝 크리스마스 이벤트였다.

시내 한복판에서 데드 모로즈는 "스네구로치카 어디에 있니.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줘야 하는데 어서 나오렴"이라고 외쳤다. 스네구로치카를 찾지 못한 산타는 길을 가던 젊은 여성들에게 스네구로치카가 돼 달라고 부탁했다. 여성들은 산타의 깜짝 등장에 즐거워하며 흔쾌히 역할극에 동참했다.

"아름다운 아가씨, 오늘 하루 스네구로치카가 돼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일을 도와주겠소?"라는 산타의 부탁에 시민 예카테리나 투르나는 함박 미소로 화답했다.

산타와 함께 모스크바 거리에서 1일 스네구로치카가 된 투르나는 잠시 동안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며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였지만 매우 즐거웠다"며 "아름다운 스네구로치카가 될 수 있어 영광이었다"고 말했다.

이후 또 다른 스네구로치카를 찾던 데드 마로즈는 한 중년 여성에게 다가가 스네구로치카가 되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이 여성은 "스네구로치카가 되기엔 너무 늙지 않았느냐. 난 스네구로치카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사양했다. 그러면서도 "눈 아가씨가 돼 달라는 제안을 받으니 기분은 좋다"며 웃었다.

한편 스네구로치카가 갖춰야 될 덕목을 묻는 산타의 질문에 한 시민은 "스네구로치카는 아름답고 산타를 존경해야 한다. 친절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씨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반 고로브첸코 기자·정리=조선미기자

metro HongKong

짝퉁 비아그라 판매 시가 1777억원 상당

지하 공장에서 전분 캡슐 안에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실데나필을 조금 넣고 닫으면 '짝퉁 비아그라'가 만들어진다. 원가가 1위안(약 177원)도 되지 않는 가짜다.

최근 선전시 난산구 경찰은 가짜약을 대량 제조·판매한 일당을 검거했다. 경찰은 광저우, 마오밍, 산둥 등 지에서 가짜 비아그라 판매점, 생산공장, 창고 등을 적발, 용의자 11명을 체포했다. 압수한 비아그라는 약 100만 캡슐로 시장가치로 환산하면 1억 위안(약 1777억 원)이 넘는다.

지난 3월 난산구 경찰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에서 가짜 비아그라를 파는 쇼핑몰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 쇼핑몰에서는 한 알당 3위안으로 가짜 비아그라를 구입해 45~48위안에 되팔고 있었다. 진짜 비아그라의 가격은 100위안이다.

이번 사건 수사팀은 이 쇼핑몰의 출하지, 구매 업체 등 관련 정보를 조사하고 타오바오 관리자를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 수사를 통해 광저우에 물류창고가 집중돼 있으며 생산공장은 마오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지난 5월 28일 수사팀은 이 두 곳을 적발하고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이후 10월, 11월 난산구 경찰은 수사를 이어나갔다. 성인용품 판매점 5곳을 수사하고 가짜 약품을 판매한 용의자 5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선전 주변 도시와 헤이룽장성에 있는 작은 약국이 가짜 비아그라를 도매로 구입했다"며 "이들 약국은 모두 공식 허가를 받지 않았다. 약 성분이 적어 인체에 무해할 지 모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삼성·LG, TV 고화질+스마트 융합 경쟁

쉽고 편리한 기능에 초점 맞춰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015년 글로벌 TV시장 공략을 위한 비장의 카드로 '직관성'을 내세웠다.

삼성과 LG는 CES 2015에서 스마트TV 새 운용체계(OS)를 탑재한 제품을 나란히 선보인다. 두 제품 모두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

LG전자는 '웹OS 2.0'을 CES 2015에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말 출시 이후 500만대 이상의 웹OS TV 사용행태를 분석, 이를 반영한 새 기능을 더했다. 사용자가 저장한 채널을 첫 화면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채널 즐겨찾기', 외부기기 사용 편의를 위한 '외부입력'과 '설정' 버튼의 첫 화면 배치가 이뤄졌다.

구동 속도도 개선해 첫 화면을 띄우는데 걸리는 시간을 60% 이상 줄였고 앱 간 전환 시간도 단축했다. 실제 홈 화면에서 '유튜브'를

LG전자 웹OS 2.0.

진입하는 시간은 약 70%가량 짧아졌다는게 LG전자의 설명이다.

또 '넷플릭스', '아마존' 등과 제휴해 풍성한 울트라HD 콘텐츠도 확보했다.

이인규 LG전자 TV/모니터사업부장(전무)은 "한 층 강력해진 '웹OS 2.0'으로 스마트 TV 시장을 지속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도 타이젠 TV 정식 버전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9월 삼성 오픈소스 컨퍼런스에서 기존 TV에 타이젠 OS를 올린 개발 시제품을 공개한 바 있으나 하드웨어(HW)까지 타이젠에 최적화된 정식 제품이 첫 선을 보인다.

김현석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장(사장)도 최근 "(타이젠 TV를) 내년에 볼 수 있을 것"이라 말하며 CES 등장에 힘을 실었다.

타이젠 TV는 방송화면을 모두 가리지 않고 화면 좌측부의 큰 대분류 버튼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콘 수도 기존 스마트허브에 비해 대폭 줄인다. 또 삼성전자 스마트홈의 핵심 '허브' 역할을 위한 기능도 더해지며 가전은 물론 스마트폰, 웨어러블 기기 등과의 연계도 제공된다.

한편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5는 다음 달 6~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8일>

코스피	코스닥
1897.50	527.52
(-2.66)	(-5.54)

금리(국고채 3년)	환율(원·달러)
2.18	1097.90
(+0.01)	(+1.90)

뉴스&뉴스

호주산 애플 망고 판매

18일 서울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아동 고객과 모델들이 호주산 애플 망고를 선보이고 있다. /홈플러스 제공

현대오일 카본블랙 진출

●현대오일뱅크가 국내 정유사 중 처음으로 카본블랙 사업에 진출한다. 이는 정유를 넘어 석유화학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중장기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현대오일뱅크는 17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계 한 카본블랙 업체와 합작법인 설립 및 신규 공장 건설을 위한 협력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카본블랙은 석탄에서 나오는 콜타르와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슬러리오일 등을 불완전 연소시켜 만든 탄소분말이다. 주로 타이어, 고무 등의 강도를 높이는 배합제나 프린터 잉크의 원료로 쓰인다.

/김민준기자

SK, 행복나눔 성금 120억

●SK가 그룹차원에서 120억원, SK하이닉스차원에서 27억원 등 147억원의 행복나눔성금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SK동반성장위원회 이문석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 수펙스추구협의회 김창근 의장과 모든 구성원의 정성이 담긴 성금 120억원을 전달했다. /김태균기자

한전, 도공 등 공기업도 갑질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철도공사, 가스공사 등 거대 공기업들이 자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협력업체에는 이른바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들 공기업의 계열사 등에 대한 부당지원과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각종 불이익 제공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한전과 그 자회사 6곳이 총 106억원으로 가장 많다. 도로공사 19억원, 철도공사와 그 자회사 2곳 17억원, 가스공사 12억원 등이다.

공기업들은 계열사나 퇴직자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일반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협력업체에는 공사대금을 후려치거나 각종 업무를 부당하게 떠넘겼다.

한전은 2008~2012년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화력발전자회사에 계열사인 한전산업개발을 부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발전사들이 '화력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정비용역'에 대해 한전산업개발과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경쟁입찰 대비 12~13%포인트 높은 낙찰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박성훈기자 zen@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크리스마스 할인행사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앞두고 국내외 인기 패션·잡화 브랜드를 대거 할인한다. /뉴시스

도시가스 요금 내린다

원료비 조정 협의…유가하락 따른 인하폭 조율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공공요금 인하를 주문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내년부터 내릴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말에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과 관련한 정례협의를 하고, 이에 따른 요금 조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제유가 하락이 국내 휘발유 가격 등에 적시에 반영되는지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도 유가 절감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우리는 원료 도입가격이 ±3% 이상 변동될 경우 2개월 간격으로 홀수 달에 이를 자동적으로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정례협의에서는 인하폭을 얼마나 적용해야 할지 논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하폭은 도입시기에 따른 다양한 원가와 환율 등 여러 변수를 대입해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속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료비가 인하되면 자동으로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내려간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의 89%는 원료비로 구성돼 있다. 각 시도지사는 매년 7월께 한차례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1월1일에는 원료비 하락폭만큼 자동으로 도시가스 소매요금도 그대로 반영된다.

전기요금 조정에 대한 검토도 진행된다. 하지만 전력 생산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하고, 전기요금 인하로 인한 수요 증가가 부담스러워 이번에 조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준기자 mjkim@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조 민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최저 연 3.05% 수익 보장 ELB 판매 유진투자증권은 19일 오후 2시까지 '제38회 주가연계 파생결합사채(ELB)'을 판매키로 했다. 지수가 아무리 하락해도 최저 연 3.05%를 보장해 주고 모집규모는 총 150억원이다. /유진투자증권 제공

은행 점포, 갈수록 줄어든다

국민 18곳·신한 6곳 통폐합…구조 조정 불가피

주요 은행들의 점포 통폐합 작업이 내년 초부터 다시 전개될 전망이다.

저금리 등으로 은행의 수익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서다. 연초부터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도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11월까지 270곳이 넘는 점포를 줄였던 은행권에서 내년 초부터 점포 통폐합 작업이 다시 시작된다.

국민은행은 내년 1월 14개 지점과 3개 출장소, 1개 프라이빗뱅킹(PB)센터 등 모두 18개의 영업점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지난해 42개 영업점을 폐쇄한 데 이어 이번 통폐합까지 마무리하면 국민은행 영업점은 1142개로 줄어든다.

국민은행은 명동, 목동, 서소문, 청량리 등 서울 전역에 걸쳐 8개 영업점을 폐쇄한다. 부천, 일산 등 수도권에서도 4개 점을 없앤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채산성이 떨어지고, 성장성이 부족한 지점을 중심으로 통폐합을 단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직장인 야간점포, 산업공단 밀착형 점포 등 고객의 수요에 맞는 특화점포는 늘릴 방침이라고 은행 측은 덧붙였다.

신한은행은 남대문, 목동, 역삼동, 무교동 등 서울과 수도권에 걸쳐 총 6개 지점을 통폐합할 방침이다. 이로써 지난해 하반기부터 점포 수를 40개 가량 줄인 신한은행은 내년에 영업점이 추가로 줄어들게 된다. 신한은행 측은 "인근 중복 점포를 통폐합해 영업 채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도 점포 통폐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근 지역에 있어 역할이 중복되는 점포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지점별 영업 성과에 따라 폐쇄할 방침이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점포 수는 지난달 기준으로 각각 608개, 346개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각각 27개, 8개 감소한 수치다. 농협은행 역시 내년 초부터 점포 통폐합 작업에 들어간다.

농협은행은 수도권과 지방 점포 중에서 수익성이 악화한 영업점 34곳을 내년 초 폐쇄할 방침이다.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신설하는 19개 점포를 감안해도 총 영업점 수는 1182곳으로 올해보다 15곳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기업은행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체 점포 수를 소폭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하는 상황에서 지점 통폐합은 불가피하다"면서 "문제는 지점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인력도 감축해야 하는데, 이를 단행하지 못하면서 인력정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민지기자 minji@metroseoul.co.kr

실손의보 자기부담금 두 배로

금융위, 내년 '보험료 안정화 방안'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자기공명영상(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 까다로워진다. 또 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 시 부담해야하는 자기부담금도 진료비의 10%에서 20%로 증가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규정개정과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현재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 상품별 비교공시를 개선해 사용자 중심의 조회환경을 구축하고 보장금액, 납입기간, 실제 적립액 등을 자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방안은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하면서 내년 상품가격을 높일 움직임을 보이자 뒤늦게 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도입당시 판매된 일부 실손의료보험의 내년도 보험인상률은 업계평균(참조위험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아 두 자릿수 인상이 예상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한도는 10%에서 20%로 상향된다. 이 방안은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단,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200만원 수준인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을 유지키로 했다.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료 중 보험사가 떼가는 사업비를 낮추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지도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김형석기자 khs84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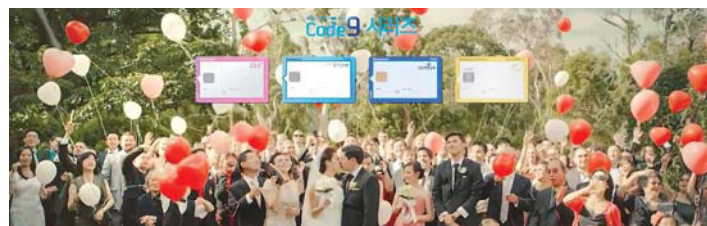
기업은행, 자카르타에 사무소 IBK기업은행은 지난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18일 밝혔다.(왼쪽부터) 박경선 기업은행 자카르타사무소장, 한영수 ㈜한영넉스 회장, 송창근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박용철 호전실업㈜회장,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대사, 권선주 기업은행장, 곤또르 아지즈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증권감독국장, 신기엽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장, 박영택 ㈜원일 회장, 윤준구 기업은행 글로벌 자금시장본부 부행장이 개소식에 참석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기업은행 제공

신한카드 '코드나인' 2차 광고 선봬

신한카드는 18일 고객의 생활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코드나인(Code9)의 서비스 철학이 담긴 TV 광고 2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코드나인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찾아 남녀 각 9개의 코드로 분석하고, 이러한 코드들을 조합해 2만 가지가 넘는 카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카드 서비스 체계다.

예컨대 맞춤 셔츠를 구매하거나 멋진 몸매를 위해 운동을 꾸준히 하는 남성이라면 'LOEL' 코드, 자기계발에 적극적인 젊은 감각의 여성이라면 'RUBY' 코드 등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번 광고 역시 고객의 다양한 생활 패턴에 따른 코드를 찾아 이에 맞는 신한카드만의 차별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고객 중심 메시지를 담고 있다.

먼저 '카드는 고객을 몰라도 코드는 압니다' 편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강조한 것.

아울러 역동적인 화면 구성과 귀를 사로잡는 BGM 등 그동안 선보였던 신한카드 광고만의 아이덴티티도 담았다.

'고객사랑법' 편은 70억 인구 중에서 마음에 딱 맞는 인연과 만나는 과정을 코드나인에 빗대어 정서적으로 접근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개인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이 더욱 세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체계를 단순화하고 이에 맞춰 단순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이번 광고는 이러한 철학에서 출발한 코드나인을 고객들에게 잘 어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신한카드는 코드나인을 카드 상품 서비스를 넘어 마케팅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농협은행, 한은총재 표창 받아

NH농협은행은 '2014 한국은행 총재 대외포상'에서 발권부문 단체 표창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원활한 발권업무와 통화정책 수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농협은행은 설명했다.

한은에서는 매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유통화폐 청결 기여도와 한국은행 발권 정책 호응도, 화폐정사 업무 정확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금융기관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앞서 농협은행은 한국은행에서 주관한 '범국민 동전교환운동'에 참여해 주화 재통화 활성화를 통한 주화 제조비용 절감에 기여했다.

또 '손상화폐 수납운동' 전개로 시중 유통화폐 청결에 앞장서는 등 한국은행 추진 정책에 동참해왔다.

이기욱 농협은행 수신업무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한국은행의 각종 정책 방침에 농협은행이 선도은행으로서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SCREEN

HUGH JACKMAN | RUSSELL CROWE | ANNE HATHAWAY | AMANDA SEYFRIED | EDDIE REDMAYNE | WITH HELENA BONHAM CARTER | AND SACHA BARON COHEN

SCREEN 크리스마스 특집 영화

레미제라블

t.cast |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FOX FOXlife FX

12월 24일 [수] 밤 11시 TV최초

'박스피'…후강퉁…국제유가 급락…

거래소, '2014 증시 10대 뉴스' 선정 발표

금·ETN 등 투자처 다양화와 수년째 제자리를 맴도는 '박스피',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 국제유가 급락, 엔화 약세 등이 올해 증권시장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출입기자단과 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내 증권시장에 영향을 준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 금·ETN 등 신시장 개설 및 신상품 출시 = 3월 금 거래 양성화를 위한 금현물시장, 12월 미국달러선물 야간시장이 새롭게 개설됐다. 상장지수증권(ETN)도 상장지수펀드(ETF)를 잇는 새로운 자산관리상품으로 11월 선보였다. 변동성지수선물, 섹터지수선물이 출시됐으며 주식선물·옵션시장 제도도 개선됐다.

▲ 박스권에 갇힌 증시 = 코스피는 올해에도 1850~2100선에서 움직이며 2011년 8월 2일 2121.27포인트 이후 2100포인트를 넘지 못하는 횡보 장세를 지속했다. 코스닥지수도 지난 9월 580포인트를 돌파했으나 이후 하락해 올해에도 600포인트를 넘지 못했다.

▲ 유가·코스닥시장 상장 열풍 = 삼성SDS, 제일모직 등 대기업 상장과 더불어 코스닥시장에도 올 한해 약 70개사가 상장했다. 삼성SDS와 제일모직 공모 청약에 각각 15조원, 30조원 이상의 시중 자금이 몰리는 등 상장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 배당활성화 정책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7월 취임 후 경기부양과 주주권리 강화를 목적으로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했다. 거래소는 10월 신배당지수를 발표하고 배당지수 ETF를 상장하는 등 배당투자 활성화를 이끌었다.

▲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부상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와병 이후 경영권 승계 등 지배구조 관련 사안들이 지속적으로 부각됐다. 이후 삼성SDS와 제일모직 상장, 삼성종합화학과 삼성테크윈 등 계열사 매각을 추진하는 등 삼성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 현대차 한전부지 10조 매입 = 현대차그룹은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부지 입찰에 참여해 감정가의 3배가 넘는 약 10조5500억원에 낙찰 받았다. 이후 고가매입 논란 등으로 현대그룹 상장사 16개사의 전체 시가총액이 약 12.28% 하락했다.

▲ 금리 최저치 기록 = 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2.25%에서 2.0%로 인하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09년 2월 2.0%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물가 장기화, 소비심리 악화, 정부와의 정책 공조 확대 등의 요인으로 추가인하 가능성도 확대됐다.

▲ 후강퉁 시행 = 중국 리커창 총리가 4월 보아오포럼에서 상하이거래소와 홍콩거래소 간의 교차거래를 발표했다. 11월 후강퉁 시행 이후 국내투자자를 비롯한 해외투자자가 홍콩시장을 통해 상하이A주식을 직접 취득할 수 있게 됐다.

▲ 아베노믹스·엔 약세 심화 = 2012년 12월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일본 정부는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을 위해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추진했다. 아베 총리 집권 이후 미달러 대비 엔 환율은 30% 이상 하락했다. 이달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이 최대 의석을 차지하면서 엔저 현상을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 국제유가 급락 = 이라크 원유 판매가격 인하,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 불발 등으로 국제유가가 6월 이후 급락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내년에도 수급불균형 등으로 유가는 하락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김현정기자 hjkim1@metroseoul.co.kr

LIG손보, 척추측만아동 의료비 지원

무료 검진 사업 후원

LIG손해보험은 18일 서울 역삼동 본사 회의실에서 사회복지법인 한국척추측만증재단과 척추측만아동 의료비 지원과 무료 검진 사업에 대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희귀난치질환인 고도척추측만증환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국 주요 장애아동 시설에 대한 무상 검진과 예방 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척추측만증에 대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척추측만증은 등뼈가 좌우 한 방향으로 심하게 휘는 희귀 난치질환이다. 조기에 발견해 제때 치료하면 대체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 할 경우 평생 걷지 못하거나 심지어 스스로 앉아있는 것도 힘들게 된다.

하지만 수술과 교정에 약 1000만원의 의료비가 필요해, 현재 많은 고도척추측만아동이 가정형편상의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병헌 LIG손보 사장은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매칭그랜트로 모인 LIG희망나눔기금을 통해 난치병인 척추측만증의 조기 발견과 의료비 지원에 소중히 사용돼, 많은 환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

일반 가맹점 대상 'IC카드' 거래 시범 운영 KB국민카드는 18일 일반 가맹점을 대상으로 IC(집적회로)카드 거래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운영은 IC카드 거래의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내년 1월 말까지 KB국민카드 본사와 25개 영업점 인근 일반 가맹점 300여 개가 대상이다. /KB국민카드 제공

나재철(오른쪽) 대신증권 대표이사와 정경엽 대신증권 노조위원장이 단체협약 체결문을 들고 악수 하고 있다. /대신증권 제공

대신증권,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타결

대신증권은 18일 후발노동조합인 대신증권 노조와 18차례에 걸친 교섭 끝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이사와 정경엽 대신증권 노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림동 대신증권 연수원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대신증권 측은 "계속되는 증권업 불황 속에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노사간 요구사항을 양보하고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한도 상향과 임직원의 퇴직금 추가 지급 등 복리후생 관련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됐다.

사측은 '무쟁의 타결 격려금'과 '경영목표 달성·성과 향상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대신증권 노조 조합원들에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재 대신증권은 복수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는 후발노조인 대신증권 노조다.

선발노조인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는 사측과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김현정기자

카드 3사, SMS서비스 내년부터 유료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곤욕을 치른 카드 3사가 내년부터 문자알림(SMS)서비스를 유료로 바꾼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문자알림서비스의 한시적 면제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는 안내문을 고객들에게 보냈다.

NH농협카드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나, 내년 2~3월께부터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알림서비스는 카드 사용 때마다 그 내용을 고객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것으로 대부분 카드사들은 해당 서비스에 월 200원~300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있다.

KB·롯데·농협 카드 3사도 지난해까지 SMS 서비스에 대해 월 300원의 요금을 받아왔지만, 올해 초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무료 서비스로 전환했다.

하지만 KB국민·롯데카드는 내년 1월 카드 사용분부터 SMS 서비스를 월 300원의 유료서비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은 SMS 서비스를 받지 않으려면 고객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월 300원의 이용료가 청구된다.

한편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는 다른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카드 사용 건당 금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는 고객이 신청하면 별도 요금 없이 SMS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백아란기자 alive0203@

‘제일모직 상장’ 이재용 자산 7조 육박

공모가 보다 113% 오른 11만3000원 마감
삼성그룹 지주사 체제로의 이행도 관심

제일모직이 1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기업인 만큼 주가 추이는 물론 그룹 지주회사 체제로의 이행 등 다양한 관심이 몰리고 있다.

제일모직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10%,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이 각각 8.37%, 이건희 회장이 3.72%를 보유해 오너 일가 지분이 45.56%에 달한다.

제일모직 상장으로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즉 삼성그룹의 간판인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나눈 뒤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지주회사를 합병할 경우 그룹 지배구조가 한층 탄탄해진다는 시나리오다.

일단 그룹 측은 이에 대한 반응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주사 전환 시나리오에 힘을 실어주는 방증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결정이 한 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조원대 자사주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체 지분의 1.12%를 취득하는 것으로 삼성그룹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29.85%(계열사·특수관계인 17.63% + 삼성전자 자사주 12.21%)까지 상승한다.

통상 자사주는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다.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일모직 유가증권 상장식에서 윤주화(오른쪽부터), 김봉영 제일모직 대표이사와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시초가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6%에 불과하지만 제일모직과 삼성전자 지주사가 합병하면 7~8%대의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대해 삼성그룹 측은 "지주사 전환에 관한 공식 입장은 정해진 것도 말해 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제일모직 상장으로 이재용 부회장은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뒤를 잇는 주식 부호로 등극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제일모직의 시초가 10만6000원을 적용하면 이 부회장의 보유 상장 주식 규모는 6조9000억원대로 집계된다.

주식 자산 순위에서 2·3위에 랭크됐던 서경배(6조원대)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과 정몽구(5조원대)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한 계단씩 밀어낸 셈이다.

이건희 회장은 11조5000억원대의 주식을 보유해 부동의 1위다.

이날 제일모직은 공모가보다 113.2% 오른 11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은 15조2550억원으로 단숨에 14위에 올랐고 상장 첫날 거래대금 1조3476억원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썼다.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제주항공 '인천-하노이' 신규 취항식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인천-하노이' 신규 취항식이 열렸다. 제주항공 다문화가정 고향방문 지원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된 웬티미(가운데)씨와 최규남 제주항공 대표(오른쪽 네 번째) 등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제주항공 제공

아파트 이름이 길어지는 이유는…

'펫네임' 마케팅 활용 영향

아파트 이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건설사 이름이 곧 아파트명이 됐던 시대를 지나 아파트 브랜드가 도입되고, 최근에는 브랜드 차원을 넘어 단지 특징을 강조한 '펫네임(Pet name)'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979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평균 '3자'에 불과했으나 ▲1980년대 준공 아파트는 '3.5자' ▲1990년대 준공 아파트는 '4.2자' 등으로 글자수가 점차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114가 전국 1만6342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준공시기별 아파트명의 평균 글자수를 살펴본 결과다.

특히 아파트 브랜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0년대에는 '6.1자'로 늘었고 2010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평균 '8자'다. 35여 년 사이에 아파트 이름의 글자수가 2.7배 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아파트 이름은 지역명을 붙이거나 현대아파트, 쌍용아파트 등 건설회사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주를 이뤘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 이름도 짧고 단순했다. 하지만 1998년 분양가 자율화 이후 아파트 품질이 중요시되고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이 변화하면서 아파트 브랜드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2000년 '삼성래미안'을 필두로 '대림e-편한세상', 'GS자이', '대우푸르지오' 등 브랜드를 앞세운 아파트가 속속 선보인 것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건설사들이 단지 특성을 애칭으로 표현한 '펫네임'을 마케팅에 활용하면서 아파트 이름이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추세다. 기존 브랜드의 앞이나 뒤에 '센트럴', '리버포레', '에듀', '스카이' 등의 펫네임을 붙인 것이다. 아파트 이름만 보고 입지와 교통여건, 주변환경, 단지의 성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택지지구나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건설사간 컨소시움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 두 개 이상의 건설사 브랜드가 붙으면서 아파트 이름이 길어지기도 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이름의 평균 글자수는 '5.1자'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평균 '7.8자'로 가장 길었고 이어 ▲경기(5.6자) ▲울산(5.4자) ▲대구(5.3자) ▲경북(5.2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아파트 이름이 가장 짧은 지역은 강원도로 평균 '4.4자'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이름이 가장 긴 아파트는 파주시 '가람마을10단지동양엔파트월드메르디앙'으로 나타났고 화성시 '나루마을월드메르디앙반도보라빌2차', '남양주시 해밀마을5단지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 등이 뒤를 이은 가운데 아파트 이름이 '20자'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적지 않았다. /김두탁기자 kimdt@

포드코리아 '환경 파수꾼' 활동

1회성 행사 아닌 지속적인 후원 펼쳐 '눈길'

포드코리아가 우리나라 환경보호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포드 환경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포드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1983년 유럽에서 시작된 '헨리 포드 환경보호 어워드(Henry Ford Conservation Awards)'를 이어 받아 2000년 '포드 환경 프로그램(Ford Motor Company Conservation & Environmental Grants)'으로 유럽 30여 개국에 실시되면서 본격 확산됐다.

범세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성장한 포드 환경 프로그램은 현재 전 세계 60 여 개국 이상에서 환경보호 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을 후원하며 각 국가의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 실시된 이후 지난 13년간 81개 단체에 총 약 4억6000만원을 후원해왔다. 특히 일회성 또는 단기간의 프로젝트성 활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공동체와의 상생을 도모하며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보호 활동을 실질적으로 후원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에 포드코리아는 지난 10년간의 후원 활동과 이를 통해 전개된 국내 풀뿌리 환경 운동 역사를 한 눈에 소개하는 '포드 환경 프로그램 10주년 기념 환경 백서'를 발간했다. 이후 2013년에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13 에코 워크숍(Eco Workshop)'을 열어 후원대상자들과 환경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 8월에는 동국대에서 '2014 포드 에코 토크(Ford Eco Talk)'를 진행,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내의 젊은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경보존을 위한 지속적·창의적인 방안에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토론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임의택기자 ferrari5@

빅데이터·IoT, 기업 성공시대 연다

스마트홈·스마트빌딩 등 성과 창출… 매출·영업익 신장 기여

IT업계가 빅데이터·사물인터넷(IoT) 시대를 본격화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홈, 스마트빌딩, 스마트공장, 웨어러블 기기 등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성과를 수치적으로 이야기하기엔 아직 국내 빅데이터·사물인터넷 시장의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업계는 최근 통신서비스의 발달로 점점 빨라지는 무선인터넷 속도에 비례해 빅데이터·사물인터넷 관련 사업의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무선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데이터량도 크게 늘어나고 있고 사물인터넷의 보급도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을 활용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기업도 있다.

SK C&C는 올해 초 컨설턴트, 빅데이터 기술 전문가 등 60여명으로 빅데이터 사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빅데이터 사업 TF는 출범 1년 만에 산업 전문가, 통계분석 전문가, 빅데이터 기술 전문가, 아키텍트, 서비스 설계 전문가, IT 인프라·시스템 전문가 등 100여명이 포진한 종합 빅데이터 서비스 전문조직으로 성장했다.

빅데이터 사업 TF는 올 한해 동안 ▲비정상 공정운전 사전감지 ▲수율·품질 분석 ▲비정상 영업·거래 탐지(Fraud Detection)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고객 이탈 방지 ▲통합 여론 모니터링 ▲통합 보안 등 영역별 맞춤형 빅데이터 서비스를 개발·적용했다.

이를 통해 올해 많은 부분 사업 성과도 창출됐다. SK C&C 관계자는 "올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프리미엄 IT서비스 사업을 기반으로 영업이익을 확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내년에는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만들어내는 '빅데이터 2.0' 시대를 본격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는 빅데이터·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시대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탄탄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SK텔레콤은 빅데이터를 전통시장에 활용해 진화에 나서고 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젊은 층 대상 데이터베이스(DB) 마케팅 기법 등을 활용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또한 사물인터넷 융복합 솔루션인 스마트양식장과 스마트 로컬푸드 등을 선보이며 농수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주력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집 안의 가스밸브 상태를 확인하고 잠글 수 있는 사물인터넷 기반 안심 서비스인 'U+가스락'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했다. U+가스락은 무선 통신 솔루션인 'Z-wave'로 연결돼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가스밸브 상태를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 시대를 앞두고 빅데이터·사물인터넷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적극적인 투자와 연구개발(R&D)로 발판을 마련한 기업들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할 전망"이라며 "스마트홈, 스마트빌딩, 스마트공장 등 다분야에서 보다 편리해질 뿐 아니라 기업들의 매출 및 영업이익 신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0403@metroseoul.co.kr

삼성SDI "나눔으로 희망 키워"

청소년 멘토링·저소득가정 대학입학금 지원

삼성SDI는 '글로벌 소재·에너지 토탈 솔루션 기업'이라는 기업 비전에 맞춰 미래를 이끌어 갈 주역이자 에너지인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의왕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을 위한 꿈 키움 컴퍼니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왕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 멘토링 사업이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삼성SDI는 비용전액을 지원하고, 임직원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청소년 꿈 키움 컴퍼니는 청소년 진로교육 전문 인력의 기획 하에 임원 특강, 직군별 직원 특강, 학부모 대상 전문가 특강, 직업체험 등 한해 동안 4개 프로그램으로 실시된다.

또 예술적 재능을 가진 발달장애청소년을 전문음악인으로 육성하는 사업을 후원하며 장애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예술 재능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발달장애청소년 관현악단인 '하트하트오케스트라'를 후원하고 있다.

이밖에 11월부터 환경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저소득 가정 아동 아토피 예방과 치료를 위한 '아토피 없는 자유로운 세상, 아자아자'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아토피 예방과 치료를 위한 아동지원 사업이다.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환아들의 치료지원과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매년 임직원이 참여하는 마라톤 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때 모인 성금으로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대학 입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나누리 마라톤 기부에는 매년 900명 이상의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임직원 성금과 같은 금액을 회사가 기부하는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추가 지원해 지난해까지 69명의 학생들에게 1억9300만원을 전달했다. 올해부터는 의왕사업장 뿐 아니라 기흥, 여수 등 7개 지방 사업장에서 동시 실시해 나눔의 크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태균기자 ksgit@

삼성SDI '푸른별 환경학교'에 참가한 어린이와 임직원들이 하트를 그리며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삼성SDI 제공

한국과학창의재단, 크리스마스 과학콘서트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 영국문화원이 주관하는 '제13회 크리스마스 과학콘서트'가 18일 개막했다. /한국과학창의재단 제공

가전업계, 연말 성수기 프로모션 활발

할인·경품 제공으로 소비자 눈길

생활가전업체들이 연말 성수기를 맞아 할인과 경품 프로모션을 펼치고 있다.

내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올해 물량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재고를 정리하기 위해서다. 또 올 한해 내수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다소 부진했던 매출을 이 시기에 만회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유위니아는 오는 31일까지 에어워셔 보상판매 이벤트를 펼친다. 위니아 에어워셔를 공식 취급하는 전 매장에서 '2015년형 에어워셔 보상판매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제품 2015년형 에어워셔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들은 제조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가습기 또는 에어워셔를 가져오면 최대 7만원까지 보상 받아 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2015년형 위니아 에어워셔, 리홈쿠첸 IH스마트레인지, 쿠쿠전자 풀스테인리스 2.0 고압력 커브드 밥솥

리홈쿠첸은 전기레인지인 'IH스마트레인지', '하이브리드레인지'와 '트로이'를 포함한 4종의 밥솥을 할인 구매할 수 있는 37기 할인구매 체험단을 내년 1월 8일까지 총 200명 모집한다. 체험단에게는 전기레인지 구매 시 네오플램 IH전용용기 3종과 전용 스크래퍼, 세정제를 증정하며 IH스마트레인지는 선착순 50명에 한정해 판매한다. 또 분유포트·제빵기·와이드그릴 등 생활가전 10종을 수량 소진 시까지 판매하는 한정수량 특가 기획전도 함께 진행된다.

쿠쿠전자는 온라인을 통해 참가자 전원에게 10%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쿠쿠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풀스테인리스 2.0 고압력 커브드'와 관련된 퀴즈를 풀면 자동 응모된다. 참여자 중 선정해 60만 원 상당의 풀스테인리스 2.0 고압력 커브드 밥솥, 쿠쿠 전기 그릴, 쿠쿠 전기주전자를 증정한다.

한경희생활과학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공식 쇼핑몰에서 '한경희 온수매트 스팀팩토리' 3종을 30% 할인 판매한다. 구입 제품에 따라 베스트 제품인 스팀청소기와 스팀다리미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한다.

/정혜인기자 hijung0404@

우정총국, 128년 만의 재개국

권기봉의 **도시산책** <107>

서울 견지동 일대를 걷다 보면 조계사 바로 옆에 오래된 한옥 한 채가 서있는 걸 볼 수 있다. 이 땅에 설립된 최초의 우체국이자 근대적인 우정사업의 발원지인 '우정총국'이다.

우정총국이 처음 문을 연 것은 대한제국이 성립되기 전인 1884년이었다. 지금 현재 '정보통신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는 그해 4월 22일 고종이 우정총국을 설치하라는 전교를 내리면서 11월께 업무를 시작했다.

그러나 우정총국은 12월 4일 열린 개국 축하연에서 일본에 기운 개화파 인사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실패하면서 개국 21일만인 12월 9일에 문을 닫고 말았다. 건물은 그 뒤 중국어 교육기관인 한성한어학교나 사립 중등학교인 중동학교 교사로 쓰이다 1930년대엔 경성중앙우체국장 관사 등으로 이용되었다. 초기의 웅대한 뜻과 달리 건물의 실제 용도는 초라했다.

그랬던 우정총국이 문을 닫은 지 128년 만인 지난 2012년 다시 문을 열었다. 이번엔 명실상부한 우체국으로서다. 다만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본연의 기능을 복원하기는 하되 제한된 공간 안에서 소포와 등기 서비스를 제외한 기본적인 우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내부에는 한국 최초의 우표인 '문위우표' 5종을 비롯해 한국 최초의 기념우표인 '고종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우표' 등을 전시해두었다. 1900년대 우체국에서 실제 사용했던 날짜 도장과 우편물의 무게를 측정할때 사용했던 저울 등을 통해 초기 우체국의 모습을 엿볼 수도 있고, 서양 각국의 근대적 우정서비스 현황을 소개한 옛 신문기사 등 모두 37종 114점의 전시물을 만날 수 있다.

사실 우정총국이 설립되기 이전의 역참제 아래에서는 극히 일부의 계층만 우편이나 통신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비록 금세 문을 닫기는 했지만 우정총국을 계기로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우표만 사면 통신을 할 수 있는 근대적인 우편제도가 시도되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한옥 한 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우정총국 건물 안에 서려 있는 '통신 기회의 평등'과 같은 역사적 의미는 결코 간단치가 않다. /'다시, 서울을 걷다' 저자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새직장 찾는데 면접서 계속 틀어져 능동적 일처리 능력부터 키우세요

Q 송어 남자 76년 8월 17일 23시 29분

최근에 비교적 오래 다니던 직장에서 대우나 근무조건이 너무 좋지 않아 그만두고 새 직장을 찾아보는 중입니다. 퇴사한 이후부터 다른 회사들과의 면접이나 최종면접이 막판에는 늘 일이 틀어졌습니다. 계속 6개월째 쉬고 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제 수입만큼 벌고 있고 다니는 회사가 매우 좋은 터라 생활에는 걱정은 없습니다. 아내도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자기계발을 하라고 응원하지만, 아내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마음이 편치 않고, 제 일이 풀리지 않아 매우 속이 탑니다. 앞으로 제 일이 풀리는 시점이 언제쯤인지 궁금합니다.

A 사주부호를 60갑자라고 하는데 그중에 병진년(丙辰年)에 태어났습니다.

특성은 만물이 얼어붙어 안으로 움츠려 있다가 사회활동을 유지하기에 대인관계가 부드럽고 우유부단할 수 있습니다. 매사에 정확하여 활동적인 역할보다는 수동적인 역할로서 재물활동을 이루고 직업 활동도 하게 되는데 천성이 조용히 모든 일을 소리소문 없이 해나가는 능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에서 일은 묵묵히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분들에게 승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분명 내가 열심히 일한 것은 맞지만 일한 것에 비해 대가는 미약합니다. 그리하여 불평불만도 생기고 이직 현상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쭈뼛거리다가 승진에서 밀리는 거지요.

그렇다고 자기 일을 한다고 현재의 생활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시고 행복을 꿈꾸신다면 먼저 나를 돌아보세요.

귀하의 사주구성을 보면 본인 스스로도 사람은 좋은데 마무리가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운세가 미약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는데 남이 충고를 하면 수긍을 하기는 하되 개선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심리가 포함이 되어 발전을 더디게 합니다. 즉 스타트는 좋은데 마무리를 잘 못하고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일을 하는데 불평불만을 많이 하는 경향으로 흐르게 되는 않나 인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칭찬을 하고 환히 웃는 얼굴을 하다보면 일은 저절로 풀립니다. '일이 잘 풀려야 웃지'라고 하는 분들은 실패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웃으려고 노력하고 실제로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을 체험한 경험자들입니다.

2015년 2월 지나면서 작은 곳이라도 들어가 자리 잡기를 기약하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4		3	9
	6		7		9	5		2
			3		2	1		
			2			7		
	4						9	
		3			5			
		1	4		7			
4		2	5		3		1	
6	9		8					

			1		9		3	
		4		5	2			
1	7							
	9	6		8		3		
	5	2				6	9	
		8		6		5	7	
							4	3
			5	1		7		
	8		4		3			

스도쿠 정답

1	2	7	6	5	4	8	3	9
3	6	8	7	1	9	5	4	2
9	5	4	3	8	2	1	6	7
5	1	9	2	3	6	7	8	4
2	4	6	1	7	8	3	9	5
7	8	3	9	4	5	6	2	1
8	3	1	4	9	7	2	5	6
4	7	2	5	6	3	9	1	8
6	9	5	8	2	1	4	7	3

6	2	5	1	4	9	8	3	7
8	3	4	7	5	2	9	6	1
1	7	9	6	3	8	4	2	5
7	9	6	2	8	5	3	1	4
4	5	2	3	7	1	6	9	8
3	1	8	9	6	4	5	7	2
5	6	1	8	9	7	2	4	3
2	4	3	5	1	6	7	8	9
9	8	7	4	2	3	1	5	6

문제 제공= 뉴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신점[神占] 운세 12월 19일 (음 10월 28일) 김희수 인생상담 : 02)577-0541

48년생 자손들이 한자리 모인다. **60년생** 이성의 유혹 조심할 것. **72년생** 설부른 당근은 약발이 일찍 빠진다. **84년생** 중요한 결정은 일단 연기하고 관망하라.

49년생 좋은 일엔 동참하라. **61년생** 반짝했던 인기는 주춤한다. **73년생**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명심~. **85년생** 먼저 양보하면 명분과 실리 얻는다.

50년생 지갑 열 기쁜 일 생긴다. **62년생**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여라. **74년생** 미봉책은 또 다른 화근 부른다. **86년생** 큰일에 반대하는 사람을 막아라.

51년생 투자계획은 유보하라. **63년생** 운기가 열려 거침없이 진군한다. **75년생** 서류는 꼼꼼히 챙겨보자. **87년생** 순수한 사람은 어디서든 통한다.

52년생 옛 부하가 은혜 보답한다. **64년생** 눈치 없는 배우자 때문에 부글부글~. **76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 격이다. **88년생** 사랑표현은 적극적으로 하라.

53년생 원칙 따라 일처리 할 것. **65년생** 불청객은 떠난다. **77년생** 메시지 전달은 정확히 할 것. **89년생** 부르고 싶은 이름 원없이 부른다.

42년생 꼼수 부리면 손해 본다. **54년생** 돈 문제 결단은 빠를수록 이익~. **66년생** 작은 개미굴이 둑 무너뜨린다. **78년생** 바라는 대로 일이 풀려서 야호~.

43년생 야심찬 계획은 물거품~. **55년생** 가정문제 해법은 우연히 찾는다. **67년생** 문서일은 일단 관망만 하라. **79년생** 과잉관심은 역효과 부른다.

44년생 공허한 주장은 거두는 게 좋다. **56년생** 자녀에 면죄부 함부로 주지 말라. **68년생** 우월의식은 화를 부른다. **80년생** 싱글은 소개팅 기대하라.

45년생 음식으로 인한 탈 조심~. **57년생** 속내 드러내면 일만 꼬인다. **69년생** 평소 존경하는 사람이 나타나 야호~. **81년생** 우울한 마음은 정리가 된다.

46년생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 **58년생** 키 플레이어 역할에 충실할 것. **70년생** 엉뚱한 것을 쫓아 시간 낭비한다. **82년생** 삶의 분명한 목표가 생겨 즐겁구나.

47년생 실리 잃어도 명예는 지켜라. **59년생** 도전할 일이 생겨 힘이 솟는다. **71년생** 오늘 굶어도 내일에 투자하라. **83년생** 기다리던 소식 듣는다.

청렴韓세상 KOSHA가 앞장섭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의 시작입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보건 교육실시

안전작업 절차 지키기

안전한 산업현장, 행복한 대한민국 4대 필수안전수칙이 만들어 갑니다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일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도 그 출발은 안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안전을 실천할 때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없는 안심일터 만들기 – 4대 필수안전수칙에서 시작됩니다.

기계 · 설비 등 유해 · 위험 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 · 착용

근로자가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지 않도록 위험장소 · 설비 · 작업별 안전보건표지를 부착

작업 전에 모든 작업자가 유해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안전한 작업방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정비, 보수 등의 비계획작업 또는 잠재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공정에서 지켜야 할 안전작업 절차 제정 및 확행을 통해 안전한 작업 유도